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文 學 碩 士 學 位 論 文

중국공산당 창립시기 중국청년들의 소련유학
-1920년대 초 제 1세대 유학생을 중심으로-



史 學 科

김 혜 진

文 學 碩 士 學 位 論 文

중국공산당 창립시기 중국청년들의 소련유학
-1920년대 초 제 1세대 유학생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조 세 현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2월

釜 慶 大 學 校 大 學 院

史 學 科

김 혜 진

김혜진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2월 24일



주	심	문학박사	박 원 용 (인)
위	원	문학박사	조 세 현 (인)
위	원	문학박사	이 근 우 (인)

【목차】

Abstract

I. 서론	1
II. 제 1세대 소련유학생 형성 배경	6
1. 北京에 파견된 러시아 밀사	6
2. 上海에 파견된 러시아 밀사와 보이틴스키 일행의 활동..	19
III. 제 1세대 소련유학생 형성 및 파견과정	27
1. 北京에서 소련으로 떠난 『晨報』 기자단	27
2. 北京 無政府黨互助團에서 파견된 소련유학생	42
3. 上海外國語學社와 新華學校에서 파견된 소련유학생	50
IV. 결론	70

참고문헌

Studying abroad of the Chinese young in the Soviet Union when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was
-established-focusing in the first generation of the international
students in beginning of 1920s-

Hye Jin Kim

Department of History,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the 1st generation international students who left from China to the Soviet Union and studied in Moscow Dongfang University in the early 1920 when the communist party was established in China. However, since Chinese academic society has a strong tendency of evaluating the influence of Russian communist party and Comintern limitedly in relation with the establishment of Chinese communist party, they much restriction in the previous studies on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Soviet Union. Also, in relation to the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Soviet Union, they only focus on Sun Yat - sen University rather than Dongfang University.

Through a review on the 1st generation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Soviet Union, this study aimed to re-illuminate the influences of Soviet Russia and Comintern at the time whe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was launched. Especially the 1st generation international students who were dispatched from Beijing and Shanghai to Russia in the early

1920's, can be considered as the result of the establishment of communist party. Especially, the 1st generation international students in Beijing and Shanghai have an important value as the consequence of activities of the secret envoys who participated in launch of communist party in Beijing and Shanghai.

In chapter II, the study looked into the background of 1st generation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Soviet Union through the activities of the special envoys of Russia who were sent to Beijing and Shanghai in China. The author could find that Voitinsky and his company could contact revolutionist directly after they visited China and could promote international study of young people to the Soviet Union because those special envoys such as A. I. Ivanov, A. A. Polevoy and V. A. Stepany had close relationship with progressive revolutionist at that time. Based on the activities of those special envoys, Voitinsky and his company could establish the organizations, Chinese Socialist Youth League, in many regions to build up a base for dispatch of international students to the Soviet Union.

Chapter III looked into what organizations the international students to the Soviet Union prepared for the dispatch through based on the activities of special envoys and in what course they were dispatched. It focused on the international students dispatched from 『Shinbo』 (『晨報』) press corps and Beijing Anarchist Party(北京 無政府黨互助團) Supporters in Beijing area, and from Shanghai Foreign Language School(上海外國語學社) and Shinhwa school(新華學校) in Shanghai. Through

this, the study could find that the international students to the Soviet Union were in fact organized with young people believe various ideologies from various socialist's organizations, though they were described in previous studies as basic communists from early communist organizations. Also, the study could find that the Russian envoys such as A. I. Ivanov, A. A. Polevoy and V. A. Stepany helped students' formalities for entry and also gave financial aids in the process of dispatching students to the Soviet Union.

The 1st generation international students to the Soviet Union were the young people who studied in Dongfang University in the Soviet Union from 1920 to 1921 and were later dispatched various socialist organizations with aids of Russian envoys. Based on the experience, somewhat complicated and dangerous, of dispatching international students to the Soviet Union, there were established a unified organization system to dispatch international students from the middle of 1920's, and through the stable organization system, large scale dispatch of international students was possible. Also, most of the 1st generation international students to the Soviet Union later become the 1st generation revolutionists after coming back to China an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hinese revolution. Therefore, the contribution of the 1st generation international students to the Soviet Union on establishment of Chinese communist party is necessarily to be re-illuminated.

I. 서론

중국 근대 시기에 서구의 문물과 사상을 가장 먼저 접한 이들은 당시 각국에 파견된 유학생들이었다. 1 · 2차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을 겪은 청조는 서양의 군사기술을 배우기 위해 양무운동을 시작하였고 중국 최초로 유학생을 파견하였다. 중국 최초의 유학생은 容闳이라는 인물로 그는 무기 구입을 위해 미국에 파견되었고 최초로 예일대를 졸업한 중국인이 된다. 그는 귀국한 후에 미국아동유학을 진행하였지만 유학지도층의 분열로 무산되었다. 이후 청일전쟁의 패배로 큰 충격을 받은 청말 시기 지식인들에 의해 1896년부터 광범위한 일본 유학 열풍이 불었다. 이를 시작으로 일본 구미 소비에트 러시아 등 각지에 많은 유학생들이 본격적으로 파견되었다.

본고는 수많은 유학생들 중에서 소비에트 러시아로 유학을 떠난 청년들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 각지에 파견된 유학생들이 개인적인 성격이 강했던 것과 달리 소련유학생은 중국의 출로를 찾기 위한 사상적인 특명을 가지고 공산당과 이후 국민당의 지도 아래 조직적으로 파견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소련유학생 파견은 1920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지에 비교적 빠른 시기부터 유학생들이 파견되어졌던 반면에 소비에트 러시아는 유학 대상국으로서 1917년 10월 혁명 이후에야 청년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1919~1920년 소비에트 러시아 정부가 두 차례 중국에 대한 선언문을 발표하여 제정 러시아 시기의 일체 불평등 조약과 중국에서 강탈한 특권들을 폐지한다고 선포한 것과 세계혁명의 성취하기 위한 일환으로 밀사를 파견하여 중국공산당 창립을 돕도록 한 것은 중국에서 소비에트 러시아 유학 붐이 형성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한편 소비에트 러시아에서는 중국 내부의 상황을 인식하여 1921년 5월 모스크바 동방노동자 공산주의대학(약칭 동방대학)을 설립하였다. 이 대학은 러시아공산당이 전문적으로 소비에트 러시아 동부의 소수민족과 동방

식민지 국가의 혁명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종합대학이었다. 동방 대학 내에는 국제부와 국내부가 개설되었다. 국제부는 민족과 언어에 따라 학생을 중국반 조선반 일본반 돌궐반 페르시아반 몽고반 월남반 인도네시아반 인도반 신강반 등으로 나누었다. 국내부에는 우즈베크반 카자흐반 그루지야반 등으로 나누어 소비에트 국내 동부 지구 소수민족을 양성하였다.¹⁾ 1920년대 초기 중국의 청년들은 동방대학 국제부 중국반에서 유학을 하면서 중국 혁명을 위한 소양을 키웠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중국학계의 소련유학생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특히 1920년대 초기 소련유학생 연구는 중국 공산당 창립과 관련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중국 공산주의 운동의 자생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러시아공산당 및 코민테른의 영향을 제한적으로 평가하려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소련유학생들의 귀국 후 활동에 대해서 이론에만 충실한 나머지 중국 국내 사정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아 실제투쟁에서 많은 오류를 범한 것으로 축약하여 그들의 역할을 축소하는 경향이 짙었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혁명의 승리가 코민테른과 소련유학생들을 배제한 모택동의 독자노선²⁾의 결과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적인 축소이다. 이러한 이유로 소련유학생에 대한 연구는 프랑스 일본 등 기타 국가의 유학생들에 비해 제한적이었다.

아울러 한때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우호적이지 못했고, 중국에서 소련 유학에 관한 사료 접근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90년대 초까지 소련유학생에 대한 연구는 부진하였다.³⁾ 그러나 90년대 후반부터 차츰 중국과

1) 張澤宇, 『留學與革命-20世紀20年代留學蘇聯熱潮研究』, 人民出版社, 2009, 111~114쪽.

2) 沈志華 主編, 『中蘇關係史綱-1917~1991年中蘇關係若干問題再探討』,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1, 2쪽.

3) 80년대 중국학계의 소련 유학생 연구는 다음과 같다.

康民, 「莫斯科中山大學評述」, 『天水師專學報』, 1988 第1期.; 米鎮波, 「赴蘇俄留學述略(1925-1930)」, 『黨史縱橫』, 1988 第4期.; 黃新憲, 「莫斯科“中山”, 東大“與國共兩黨留蘇生」, 『理論學習月刊』, 1989 第3期.; 戴學稷, 「走十月革命的道路-二三年代的留蘇浪潮與中國革命運動」, 『內蒙古大學學報』, 1989 第4期.

대만학계는 70년대부터 유학생 연구가 활발했고 90년대 이후로는 하향 추세였다(자세한 내용은 李喜所, 「中國留學生研究的歷史考察」, 『文史哲』, 2005 第4期, 114쪽 참고).

소련의 관계가 개선되고, 러시아 당안 사료가 기밀해제 되면서 중국의 소련유학 연구는 점차 활성화되었다.⁴⁾

하지만 현재 중국학계의 소련유학생에 대한 연구는 주로 모스크바 중산대학으로 파견된 소련유학생에 대한 연구에만 집중되고 있으며 동방대학에서 유학한 청년들에 대한 연구는 개괄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 이유는 중산대학이 1925년 손문의 서거를 기리기 위해 러시아공산당이 설립한 것으로 오직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국공합작으로 인해 국공양당의 청년들이 이곳에서 유학을 하여 동방대학에 비해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⁵⁾

그러나 동방대학으로 파견된 소련유학생에 대한 고찰은 중국공산당 창립시기와 맞물려 중국공산당 창립 연구에 소비에트 러시아 및 코민테른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⁶⁾ 특히 1920년대 초기 북경과 상해지역에서 파견되어 최초로 동방대학 중국반에서 유학한 제 1세대⁷⁾

소련유학생에 관한 대만학계 연구 성과는 中華民國留俄同學會, 『60年來中國留俄同學之風露踴躍』, 中華圖書出版社, 1988; 鄧文儀, 『留學俄國的回憶』, 傳記文學 第28卷이 있다.

4) 소련 유학생 연구사 논문은 다음과 같다.

李喜所, 「中國留學生研究的歷史考察」, 『文史哲』, 2005 第4期; 張澤宇, 「中國近現代留蘇教育史研究綜述」, 『徐州師範大學學報』第31卷 第5期, 2005.

5) 중산대학에 대한 저서는 郝世昌, 李亞晨, 『留蘇教育史稿』, 黑龍江教育出版社, 2001.; (美)盛岳, 『莫斯科中山大學和中國革命』, 東方出版社, 2004 등이 있다. 연구논문으로는 康民, 「莫斯科中山大學評述」, 『天水師專學報』, 1988 第1期; 琚忠發, 「論中國二、三十年代的留蘇浪潮」, 『南京政治學院學報』, 1991 第5期; 楊奎松, 「“江浙同鄉會”事件始末」, 『近代史研究』, 1994 第3~4期; 邵余文, 「同王明鬥爭到底的人-我黨早期共產黨員俞秀松」, 『黨史縱橫』, 1995 第4期; 王中人, 「鬥爭激烈的莫斯科中山大學」, 『文史精華』, 2002 第3~4期; 周重禮, 潘美娥, 「莫斯科中山大學-中國革命的“洋學府”」, 『湖南檔案』, 2002 第11期; 方一戈, 「青年蔣經國與“江浙同鄉會”冤案」, 『文史春秋』, 2003 第2期; 周重禮, 「走近中國革命搖籃莫斯科中山大學」, 『史海鉤沉』, 2003 第5期; 鄧紹輝, 「中國近代留俄蘇學生述論」, 『教育史研究』創刊二十周年紀念論文集7, 2009; 馮秋香, 「早期馬克思主義教育思想中國化研究-以20世紀20年代蘇俄教育導入中國為視角」, 『河南社會科學』, 2009 第3期; 魏善玲, 「南京國民政府前期留學生群體的結構分析」, 『江蘇社會科學』, 2010 第3期 등이 있다.

6) 최근 중국공산당 창립과정에서 소비에트 러시아와 코민테른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李丹陽 (日)石川楨浩 등이 있다.

7) 소련(러시아)유학생에 관한 세대구분은 학자들마다 규정하는 범위가 다르다. 중국 유학사를 통틀어 소련유학생 세대를 제 6세대라고 규정짓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戴學稷, 徐如 「略論近現代中國留學史的分期和中國留學生的時代使命」, 『內蒙古大學學報』, 1997 第

소련유학생은 소비에트 러시아 및 코민테른에서 파견한 밀사들의 공산당 창립 활동 과정 중에서 나타난 결과물로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1세대 소련유학생에 대한 연구에만 집중하고 있는 연구는 거의 없으며⁸⁾, 1920년대를 포괄하여 소련유학생을 연구한 저서나 논문에서의 제 1세대 소련유학생의 언급은 개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제 1세대 소련유학생에 대한 연구 중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는 張澤宇⁹⁾와 徐行¹⁰⁾의 연구이다. 장택우의 저서는 소련유학생에 대해 비교적 체계적으로 서술한 저서로 1920년대 파견된 유학생들을 폭넓게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제 1세대로 파견된 유학생에 대해서 북경 『晨報』 기자 신분으로 소비에트 러시아로 파견된 기자단과 湖南俄羅斯研究會 上海外國語學社에서 소비에트 러시아로 유학을 떠난 청년들에 대해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다.

장택우의 호남아라사연구회에서 소련유학생을 파견했다는 언급¹¹⁾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고찰해 보면 호남아라사연구회에서 직접 유학생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 상해외국어

4期), 중국 소련유학사에서 청말 러시아유학생 다음으로 제 2세대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郝世昌, 李亞晨, 『留蘇教育史稿』, 黑龍江教育出版社, 2001, 2쪽). 그러나 필자는 1920년대 초 제 1세대 소련유학생의 범위를 1920~1921년에 북경과 상해지역에서 조직적으로 파견된 이들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것은 제 1세대 소련유학생 연구의 선구자인 서행이 규정한 상해외국어학사에서 파견된 이들을 비롯하여 같은 시기 북경지역에서 파견된 유학생들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제 2세대 소련유학생은 1923년에 중국 국내와 유럽에서 모스크바로 파견된 학생들로 제 1세대와 제 2세대의 시간적인 경계는 분명하다. 그리고 제 2세대 소련 유학생 파견은 중국공산당 창립 이후로 제 1세대 유학생이 파견된 조직이 다양했던 것과 달리 중국 국내는 中央宣傳教育委員會가 담당하였고, 국외는 中共旅歐總支部에서 담당하여 통일되고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었다.

8) 동방대학에서 유학한 제 1세대 유학생에 관한 연구논문은 徐行, 「中共第一代留俄生述論」, 『中共黨史研究』, 1997 第1期; 「第一代留俄生與中共骨干力量的增強」, 『神州學人』, 2001 第7期; 奉仰聰, 「第一代留俄生與馬克思主義在中國的傳播」, 『湖南師範大學』 碩士論文, 2002가 있다. 그러나 이들 논문 중에서 같은 시기 북경 무정부당호조단과 상해의 신화학교에서 파견된 청년들의 소비에트 러시아 유학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9) 張澤宇, 『留學與革命-20世紀20年代留學蘇聯熱潮研究』, 人民出版社, 2009.

10) 徐行, 「中共第一代留俄生述論」, 『中共黨史研究』, 1997 第1期.

11) 장택우의 호남아라사연구회에 대한 서술은 郝世昌 李亞晨, 『留蘇教育史稿』, 黑龍江教育出版社, 2001, 53~56쪽의 내용을 아무런 비판 없이 옮겨놓은 것이다.

학사가 조직된 이후 좀 더 효율적인 유학생 파견을 위해 청년들을 상해로 파견하여 호남지역 청년들이 결국에는 상해외국어학사를 거쳐 유학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호남아라사연구회뿐 만아니라 전국 각지의 공산주의소조에서 초보적인 공산주의자들의 추천으로 상해외국어학사에 입학한 청년들이 소비에트 러시아로 떠났다. 그러므로 호남아라사연구회를 비롯한 각지의 공산주의소조를 조직한 초보적 공산주의자들과 상해외국어학사 간의 관계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행의 연구는 중국공산당 창립 이후 상해외국어학사에서 파견된 소련 유학생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상해외국어학사에서의 유학생 형성배경, 파견경로와 동방대학에서의 유학상황, 귀국 후 활동을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특히 소련유학생 형성배경에 대해서 중국공산당 스스로의 필요성과 소비에트 러시아 및 코민테른 원조를 함께 설명한다. 필자는 소련유학생 형성 배경에 대해서 중국의 내재적인 요인과 소비에트 러시아의 역할이 동시에 있었다고 하는 서행의 주장에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서행의 연구에서 제 1세대 소련유학생 중에서 북경지역에서 파견된 이들과 상해의 신화학교에서 파견된 이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소련유학생의 부족한 점을 언급하면서 유학생 사상구성이 공산주의자뿐만 아니라 아나키스트와 기타 변질분자들이 존재했다고 서술했는데, 공산주의 이외의 사상경향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묘사하고 있다.¹²⁾

12) 중국측 자료집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유학생 관련 자료집은 陳學恂, 田正平編, 『中國近代教育史資料匯編-留學教育』, 上海教育出版社, 1991.;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研究所, 『中國留學生大辭典』, 南京大學出版社, 1999가 있다. 둘째, 상해외국어학사 자료집은 上海革命歷史博物館編, 『上海革命史資料與研究』 第1輯, 開明出版社, 1992.; 張騰霄主編, 『中國共產黨幹部教育研究資料總書』 第二輯,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9가 있다. 셋째, 소련유학생의 회고록은 姚雪垠 主編, 張西曼 著, 『歷史回憶』, 東方書社, 1949.; 中國共產黨第一次代表大會前後資料選編, 『“一大”前後』 (一·二·三), 人民出版社, 1980.; 本書編輯組, 『憶秋白』, 人民文學出版社, 1981.; 『包惠僧回憶錄』, 人民出版社 1983.; 蕭勁光, 『蕭勁光回憶錄』, 解放軍出版社, 1987.; 緬懷劉少奇編輯組, 『緬懷劉少奇』, 中央文獻出版社, 1988.; 餘沈陽 主編, 『王一飛傳略·文存』, 中共黨史資料出版社, 1988.; 餘世誠, 張升善編著, 『楊明齋』, 中共黨史資料出版社, 1988 등이 있다. 넷째, 코민테른과 중국혁명 관련 자료집은 中國社會科學院 近代史研究所 譯, 『共產國際有關中國革命的文獻』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필자는 중국공산당 창립과정에서 소비에트 러시아 밀사들의 역할이 제 1세대 소련유학생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밝혀내고자 한다. 아울러 북경 상해지역의 초기 공산당 조직뿐 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주의 조직 즉 북경에서 파견된 『晨報』 기자와 無政府黨互助團에서 파견한 유학생 및 상해의 新華學校에서 파견된 유학생에 대해서도 자세히 고찰해 볼 것이다.

본문의 서술은 첫 번째 장에서는 소련유학생의 형성배경에 대해서, 두 번째 장에서는 형성된 유학생들이 어떠한 조직에서 파견을 준비하고 어떠한 경로를 취해서 떠났는지에 대해 서술하는 것으로 한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 1세대 소련유학생들의 소비에트 러시아에서의 유학생활은 제 2세대 소련유학생들 즉, 1923년부터 중국 국내와 유럽지역에서 파견되어 온 유학생들과 혼합되어 파벌분류를 일으키는 등의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들의 소비에트 러시아 유학생활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세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제 1세대 소련유학생 형성 배경

1. 北京에 파견된 러시아 밀사

러시아에서 10월 혁명의 승리는 소비에트 정권을 성립시켰다. 이러한 혁명의 여파는 중국 각지에 영향을 주었고 선진 지식인들이 러시아혁명의 길을 추구하고자 소비에트 러시아와 연락 할 방법을 찾아 나섰다.李大釗

資料 (1919-1928)』,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1.; 楊云若, 張注洪, 『維經斯基在中國的有關資料』,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2.; 『共產國際聯共(布)與中國革命檔案資料叢書(1)』, 北京圖書館出版社, 1997이 있다.

대만측 자료집은 沈云龍主編, 繆佑孫著, 『俄游叢編』, 臺灣:文海出版社, 1966.; 沈云龍主編, 『學部奏咨輯要』, 臺灣:文海出版社, 1974.; 沈云龍主編, 『京師譯學館校友叢』, 臺灣:文海出版社, 1974.; 劉眞主編, 王煥琛編著, 『留學教育-中國留學教育史料』, 臺灣:"國立"編譯館, 1981.; 李玉貞譯, 『聯共(布),共產國際與中國』(文件集)第1卷, 臺北,大東圖書有限公司, 1997이 있다.

는 러시아혁명의 동향을 중요시하고, 적극적으로 찬성한 혁명가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당시 소비에트 러시아에 대한 14개국의 무장간섭으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교통이 단절되어 접근이 쉽지 않았다.¹³⁾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선진 지식인들의 갈증을 해소해준 이들이 북경 상해 등지에서 활동한 러시아 밀사들이다. 특히 천진은 중국 최대의 舊러시아 조계가 있던 지역으로 공산당원 아나키스트 등 여러 부류의 러시아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북경 상해 등지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한 러시아 밀사들은 1920년 4월에 중국을 방문한 보이틴스키 일행보다 앞서 혁명 공작을 펼쳤고, 이들의 활동이 중국 내부 사회주의 운동과 결합되어 보이틴스키 일행의 중국 방문을 촉진시켰다.

보이틴스키 일행이 중국을 방문하기 이전부터 천진 북경지역에 거주하면서 개별적으로 혁명 활동을 전개한 러시아 교민 중에서는 이바노프(A. I. Ivanov)와 폴레보이(A. A. Polevoy)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중국공산당 창립과정에서 광범위하게 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청년들을 소비에트 러시아로 유학 보내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이바노프는 이대조와 가장 먼저 접촉한 인물로서 소비에트 러시아 대표이자 아나키스트였다.¹⁴⁾ 그는 본래 러시아 駐華대사관의 실습 통역관이었는데, 10월 혁명 이후 대다수 주화대사관의 구성원들이 소비에트 정권에 반대하여 해직명령을 받게 되면서 유일하게 소비에트정권을 지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는 혁명 정부의 유일한 대표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북경정부의 승인을 받고 있었던 러시아 주화대사관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바노프를 쫓아냈다. 그가 러시아 대사관을 떠난 것은 1918년 가을 무렵이었다. 그는 생계 유지와 정치적 사명을 위해 『北京季刊』에 伊文이라는 필명으로 친소비에트적인 글을 게재했다.

이 무렵 이바노프는 10월 혁명과 불세비즘에 관심을 가진 이대조와 접

13) 向青, 임상범 역, 『코민테른과 中國革命關係史』, 고려원, 1992. 11~16쪽.

14) 李玉貞譯, 『聯共(布)共產國際與中國』(文件集)第1卷, 臺北, 大東圖書有限公司, 1997, 27쪽.

촉을 했는데, 그는 이대조에게 소비에트 러시아와 관련한 소책자와 정보를 제공하였다.¹⁵⁾ 특히 이바노프가 1919년 9월부터 북경대학에 강사로 재직¹⁶⁾하게 되면서 이대조와 접촉이 더욱 빈번해졌다. 한 연구자는 이바노프와 폴레보이에 관해서 그들이 이대조와 접촉을 한 것이 1918년 봄 소비에트 정부가 중국에 외교기구와 정보국을 건립하기 위해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⁷⁾

한편, 이바노프는 소련유학생 파견 당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肖勁光 華林 등을 비롯한 무리들에게 소비에트 러시아로의 입국 수속 등 유학 사무처리를 도와주게 된다. 또한 1925년 세워진 모스크바 중산대학에 중국학 연구실이 설립되는데 이 연구소에서 이바노프는 중국문제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소에는 중국공산당 대표단 구성원이었던 瞿秋白이 정식 연구원으로 있었고, 王若飛¹⁸⁾ 張國燾 鄧中夏가 정원 외 연구원으로 소속되어 있었다.¹⁹⁾ 이와 같이 이바노프는 소비에트 러시아로 돌아간 이후에도 많은 소련유학생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현재 활동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이바노프에 비해 폴레보이 활동에 대해서는 중국공산당 창립과정에 참여한 혁명가들의 회고에서 비교적 많이 언급되고 있다. 폴레보이는 『詩經』을 연구한 러시아 한학자로 러시아공산당원이자 아나키스트였다. 당시 폴레보이와 접촉한 많은 혁명가들은 그를 코민테른 친진 문화연락원²⁰⁾이나 소비에트 정부인원²¹⁾으로 인

15) 李丹陽, 「最早與李大釗接觸的蘇俄代表-伊萬諾夫」, 『中共黨史研究』, 1999 第4期, 88~89쪽.

16) 關海庭, 陳坡, 「關於柏烈偉和伊凡諾夫的若干材料」, 『黨史通訊』, 1983 第19期, 28~29쪽.
關海庭, 陳坡 연구의 北京大學外國教員調查表(표2)에서 이바노프의 국적이 미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바노프가 러시아 주화대사관에서 쫓겨난 뒤, 미국 대사관에 기거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잘못 기재된 것이다(李丹陽(1999), 앞의 글, 89쪽).

17) 李丹陽, 「馬克思學說研究會與中國共產主義組織的起源」, 『史學月刊』, 2004 第6期, 54쪽.

18) 왕약비는 1923년 유럽에서 소비에트 러시아로 유학을 간 인물로서 동방대학에서 공부하였다. 1925년 중국으로 돌아와 각종 혁명 활동을 수행하다가 1928년 다시 소련으로 가서 중산대학 중국학연구실의 연구원을 맡았고, 같은 해 중산대학 졸업 후 레닌대학에서 유학하였다.

19) 張澤宇(2009), 앞의 글. 131쪽.

20) 姚雪垠 主編, 張西曼 著, 『歷史回憶』, 東方書社, 1949, 5쪽.

21) 「關謙關於北京無政府黨互助團集會活動及籌資赴俄調查等情致王懷慶呈(1921年2月)」,

식하였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폴레보이가 10월 혁명을 동정한 ‘白俄’라고 회고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폴레보이 출신은 빈한하여 10월 혁명 후에 몰수될 재산이 없었고, 박해 받을 수도 없었다. 더욱이 그는 소비에트 정권에 반대하여 중국으로 도망쳐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10월 혁명 전후에 블라디보스토크 동방학원의 통역장교였던 형의 영향을 받아 동방학원 중국과에 입학하였다. 또한 동급생과 함께 중국으로 자전거 여행을 하기도 하고 졸업논문 테마로 중국에서 간행된 정기 간행물 목록을 작성하는 등 평소 중국에 관심이 많았다.²²⁾ 그렇다면 그가 白俄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된 까닭은 폴레보이 스스로가 고이로 자신을 白俄라고 말하여 소비에트 공작 신분을 숨기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²³⁾ 폴레보이가 중국에서 활동할 당시 그의 신분은 러시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원동지구위원회 산하 블라디보스토크 분국 공작원이었고, 보이틴스키의 중국 방문 이후에는 코민테른 동아서기처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였는데 이를 숨길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²⁴⁾

폴레보이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중국인들과 왕래하며 중국어를 배웠고, 1918년 하반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중국으로 와서²⁵⁾ 천진대학 교수로 부임하였다. 얼마 후 북경대학에서도 러시아어 강의를 맡아 자주 천진과 북경을 오가며 중국 상황을 파악했다.

그런데 1924년 9월 22일 북경대학 교육부 비서처가 올린 공문 전문에 수록된 표를 살펴보면 폴레보이가 북경대에 재직하기 시작한 날짜는 1921년이었다고 적혀있다.²⁶⁾

위의 표에 따르면 이바노프는 1919년 9월부터 북경대학 정식 강사로 초

『無政府主義思想資料選』(下), 北京大學出版社, 1984, 1051쪽.

22) 寺山恭輔, 「革命ロシアからの密使と中國」, 『初期コミンテルンと東アジア』, 不二出版, 2007, 199쪽.

23) 李丹陽(2004 第6期), 앞의 글, 54쪽, 각주 4.

24) 肖甦, 「俄共黨員柏烈偉在中共建黨時的一些活動」, 『北京黨史』, 2002 第1期, 25쪽.

25) 劉玉珊 外, 『張太雷年譜』, 天津大學出版社, 1992, 30쪽, 각주2.

26) 關海庭, 陳坡(1983), 앞의 글, 29쪽, 표 1.

聘用洋員年期事項一覽表					民國十三年五月份造		
署別	機關別	職別	國籍	洋文姓名	訂立合同年期	年限	到差年月
		講師	俄	伊法爾 ²⁷⁾ Ivanoff Alexis	无	无	民國八年九月
		講師	俄	柏烈偉 S. A. Polevory	无	无	民國十年一月

표 1 이바노프 폴레보이 북경대 재직 일시

빙되었고, 폴레보이는 1921년 1월부터 북경대에서 강사직을 맡았다. 그러나 張國燾 包惠僧은 1920년 보이틴스키가 북경에 왔을 당시에 폴레보이가 이미 북경대학에서 교직을 맡고 있었다고 회고하였다.²⁸⁾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폴레보이는 1921년 1월 북경대에서 정식으로 강사직을 맡기 전까지는 천진대학과 북경대학의 수업을 겸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폴레보이는 북경대학에 재직하면서 이대조를 비롯하여 중국에서 자유주의자로 유명한 胡適, 문화학장이었던 陳獨秀를 알게 되었다. 또한 문학가이자 사상가인 魯迅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작가인 郭沫若에게 러시아 고전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 외에도 吳佩孚 馮玉祥 등의 군벌이나 孫文 등 많은 이들과 교류를 하였다.²⁹⁾

폴레보이는 중국혁명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중국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방대한 인맥을 갖게 되자, 그는 개별적으로 활동했던 러시아 밀사들과 중

27) 이바노프의 중문명은 伊文 伊法爾이다. 간혹 중국학계의 연구에서 이바노프의 중문명을 伊文 伊法爾 이외에 伊鳳閣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伊鳳閣은 전혀 다른 인물로 1922년 8월 소비에트 러시아 전권대표 요폐를 수행해서 외교담판을 진행하였고, 1923년 이후 북경대 교수직을 맡은 인물이다(徐萬民, 「伊文與伊鳳閣辨」, 『中共黨史研究』, 1993 第5期, 92~93쪽).

28) 張國燾, 『我的回憶』 第一冊, 東方出版社, 1991, 85쪽.; 「包惠僧談維經斯基」, 『維經斯基在中國的有關資料』,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2, 437쪽.

29) 寺山恭輔(2007), 앞의 글, 200쪽.

국혁명가들을 잇는 중계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1919년 9월 러시아공산당원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천진으로 와서 활동했던 보트만(N. Bortman)을 비롯하여 1920년 2-3월 경, 중국에 온 러시아공산당원인 하하로푸친(중문명 荷荷諾夫金)에게 이대조와 중국혁명가들을 소개한 것도 폴레보이였다.³⁰⁾

하하로푸친은 이대조를 만나 공산주의 조직 건설을 제안했고, 이대조가 진독수에게 편지를 써서 진독수가 이에 동의하자, 이 소식을 러시아로 돌아가 보고하였다. 이후 동방대학 중국반의 러시아어 교수가 되어 중국의 소련유학생과도 인연이 있었다. 또한 폴레보이가 1920년 4월쯤 북경에 도착한 보이틴스키 일행에게 이대조를 소개시켜준 일도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한편, 폴레보이는 천진에서 천진 북경 남경의 ана키스트 연합 단체인 眞社의 구성원들과도 1919년 이전부터 접촉하였다. 폴레보이는 광주 ана키스트 단체인 民聲社에 에스페란토를 사용하여 편지를 썼고, 천진에서 黃凌霜과 몇 차례 접촉을 가졌다. 1920년 2월 폴레보이의 주도 하에 李大釗 黃凌霜 區聲白 鄭佩剛 등이 사회주의자동맹이라는 조직 건립을 논의했고, 3월에는 사회주의자동맹이 조직되었다.³¹⁾ 천진에서 조직된 사회주의자동맹은 ана키즘과 불세비즘 합작(이하 아나 · 불 합작)의 첫 번째 조직으로 북경과 상해에도 잇달아 조직되었는데³²⁾ 폴레보이는 북경사회주의자동맹에도 참여했다.

이 외에도 1920년 8월 원동공화국 유린사절단이 파견될 당시에 유린 단장은 폴레보이를 거쳐 소련유학생들에게 경비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여권 발급에 관한 일을 그에게 전담시켰다. 그래서 구추백이 『晨報』 기자단 신분으로 소비에트 러시아로 떠났을 때 여러 가지 원조를 해 주었다. 아울러 폴레보이는 북경 무정부당호조단에서 ана키스트들이 소비에트 러

30) 任武雄, 「荷荷諾夫金: 推動南陳北李建黨的第一位蘇俄密使」, 『百年潮』, 2005 第2期, 71~72쪽.

31) 鄭佩剛, 「無政府主義在中國的若干史實」, 『無政府主義思想資料選』(下), 北京大學出版社, 1984, 956~957쪽.

32) 李丹陽, 「AB合作在中國個案研究-眞(理)社兼及其他」, 『近代史研究』, 2002 第1期, 52~53쪽.

시아로 파견될 때에도 자금과 여권을 제공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또한 그가 보이틴스키 일행으로 온 마마예프와 함께 武漢에서 건당 공작을 할 당시 무한지부의 서기 포혜승을 만났는데, 이때 폴레보이는 포혜승에게 소비에트 러시아 유학을 권유했다고 한다.³³⁾ 이상 폴레보이의 소련유학생에 대한 역할은 본론 III장에서 자세히 서술할 것이다.

이바노프 폴레보이 등 소비에트 러시아 밀사들의 개별적인 혁명 활동을 토대로 1920년 4월 보이틴스키 일행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을 당시, 소비에트 러시아의 대중국 공작 창구는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 소비에트 러시아의 대중국 공작은 러시아공산당 코민테른 외교인민위원회 계통으로 나뉘어 복잡한 양상을 보였는데, 보이틴스키가 어떤 기관의 신분으로 중국에 왔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1920년대 전후 소비에트 러시아의 대중국 공작에 대해 다소 복잡하더라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³⁴⁾

상술한 세 개의 기관 중에서 가장 먼저 대중국 공작을 실시한 것은 러시아공산당 계통이었다. 1918년 12월 러시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시베리아국이 러시아공산당의 중앙 직속 기구로 가장 먼저 설립되었다. 시베리아국의 설립 목적은 시베리아에서의 모든 공작을 철저하게 집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1920년 3월에는 러시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원동지구위원회(遠東州委)가 설립되었다. 이 기관의 설립 목적은 장차 성립될 遠東共和國 경내의 당 조직을 관할하기 위한 것이었다. 원동지구위원회가 막 성립되었을 당시 비밀리에 극동의 정보 수집을 포함한 혁명 업무를 전담할 기구로 하급조직인 블라디보스토크 분국이 조직되었다. 그리고 이 블라디보스토크 분국 내에 해외공작처를 설립하여 대외공작 기관으로 삼았다. 이 기구는 중국 혁명가들과 연계를 중심으로 한 중국 공작 전담기구였다.

33) 包惠僧, 「中國共產黨第一次代表大會的幾個問題」, 『“一大”前後』(二), 人民出版社, 1980, 373쪽.

34) 소비에트 러시아의 대중국 공작 기관에 대해서는 서상문, 『혁명러시아와 중국공산당-1917~1923-』, 백산서당, 2008, 162~188쪽.; (日)石川禎浩, 袁廣泉 譯, 『中國共產黨成立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 80~83쪽.; 劉孝鐘, 「コミンイテルンと東アジア(臨時)ビューロー」, 앞의 글(2007), 41~47쪽을 참고하여 서술하였다.

해외공작처의 전권대표는 빌렌스키-시베리아코프에게 맡겨졌다. 빌렌스키는 소비에트 러시아 정부 외교인민위원회 원동 전권대표의 신분으로 원동지역에 잠입해 들어가 공작을 한 인물이다. 그는 원동지역에서 동아시아 각국 민중의 혁명운동을 지지하였다. 특히 한 중 일 혁명조직과 연계하여 기관지를 출판하거나 소책자 및 전단인쇄 배포 등 선전공작을 강화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원동지구위원회 블라디보스토크 분국의 해외공작처 전권대표로 발탁된 빌렌스키는 1920년 2-3월 코민테른과 협의를 거쳐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때 중국으로 파견된 대표단이 보이틴스키 일행이었다.

한편, 1920년 4월에는 원동공화국이 설립되었다. 원동공화국은 일본군과 소비에트 정부의 직접적인 충돌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완충국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것으로 급조되어 설립된 것이었다. 이 국가는 공식적으로는 소비에트 정부와 무관하고 러시아에 예속되어 있지 않는 하나의 독립된 민주적 국가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칙적인 외교 조치와 성명은 모두 러시아공산당 중앙위원회나 러시아 소비에트 정부 외교인민위원회의 비준을 거쳐야만 했다. 결국 원동공화국은 1920년 4월부터 1922년 11월까지 존재할 수 있었고, 나중에 소비에트 정부로 흡수되었다.

1920년 8월 원동지구위원회는 시베리아국과 동급으로 승격되어 러시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원동국으로 개편되었다. 이 기관은 원동공화국을 탄생시킨 기관으로서 태생적인 이유로 양자 간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1920년 8월 북경에 원동공화국 유린 사절단이 파견될 때에도 원동지구위원회 산하 블라디보스토크 분국 해외공작처 전권대표였던 빌렌스키가 사절단의 비서 신분으로 올 수 있었다. 같은 시기 시베리아국은 이르쿠츠크에 동방민족처를 설립하여 대외공작 창구로 삼았다. 당시 동방민족처가 이르쿠츠크에 설립된 이유는 중국인과 조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그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조직을 활성화 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비에트 러시아 정부는 동아시아 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각지에

기관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조직하였기 때문에 각 기관 간의 충돌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시베리아국 동방민족처와 원동공화국(및 러시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원동국)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왜냐하면 원동공화국이 비록 소비에트 러시아의 통제를 받았지만, 독립국의 지위를 가지고 중국과 교류하였기 때문이다.³⁵⁾ 원동공화국은 러시아공산당이나 코민테른의 자금과 정보가 중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동공화국의 경내(치타 등)를 경유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국에서의 다른 기관 활동을 방해하였다.

예를 들어 동방민족처로 보내진 모든 서신 보고서 통보문 신문과 잡지가 원동공화국을 경유할 때마다 압류되어 제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동방민족처가 상해에 설립된 코민테른 동아시아처와 연계를 맺으려 할 때에도 원동공화국 대표 단장이었던 유린에게 차단당해 보고서마저 전해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동방민족처는 모스크바에 불만을 표시하며 직접적으로 코민테른이 원동공화국을 포괄해 줄 것을 요구하여 중간에서 방해하는 것을 피하려고 했다.

코민테른 계통의 대중국 공작은 1920년 하반기에 정식으로 시작하였다. 아울러 코민테른 집행위원회는 원동에 코민테른 원동서기처를 설립하려고 준비하였는데, 설립지역을 둘러싸고 각 기관 간의 논쟁이 있었으나 결국 이르쿠츠크에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1921년 1월이 되어서야 러시아공산당 코민테른 외교인민위원부 세 계통으로 나뉘었던 대중국 공작기관이 기본적으로 코민테른 계통 안으로 일원화 되었다.

1920년 4월 중국에 보이틴스키 일행이 파견될 당시는 아직 대중국공작기관이 통일되지 않은 시기로, 이 시기에는 주로 러시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원동지구위원회 소속 블라디보스토크 분국이 중국 혁명 활동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이후에 원동공화국 유린사절단을 비롯하여 소비에트 러시아의 여러 기관의 밀사들이 중국 혁명 활동에 관여하였고, 소련유학생 형성

35) 원동공화국의 성격에 대해서는 홍웅호, 「극동공화국 건설에 나타난 소련의 동아시아 정책의 한 단면」, 『대동문화연구』 52집, 2005를 참고.

에도 이러한 복잡한 상황이 그대로 드러난다.

보이틴스키 일행은 블라디보스토크 분국에서 파견한 사자의 신분으로 중국에 왔다. 그러나 보이틴스키 일행은 코민테른의 협의를 거쳐 파견되었기 때문에 코민테른의 사자이기도 했다. 당시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러시아공산당은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의 영도권에 대해 간섭할 수 있었고, 동시에 러시아공산당은 그 자체가 코민테른 지부로 여겨졌다. 종합해 보면 보이틴스키 일행은 블라디보스토크 분국과 코민테른 사자의 신분으로 중국에 파견된 것이었다.³⁶⁾

보이틴스키 일행 규모는 5인설이 일반적이다. 보이틴스키, 그의 처 쿠즈네조바, 비서인 마마예프와 그의 처 마마네바, 통역을 맡았던 楊明齋이다. 보이틴스키의 부인과 양명재는 이후에 상해외국어학사에서 러시아어 교사를 맡아 소련유학생들의 어학을 책임졌다.

양명재는 山東省 平度縣 사람으로 가세가 기울어 1901년에 러시아로 이주하였다. 10월 혁명 이전 이미 그는 레닌이 영도하는 볼셰비키당에 가입하였고, 차르러시아 외교 기관에 직원이 되어 비밀공작을 수행하였다. 10월 혁명 이후 양명재는 신생 소비에트 정권에 대한 제국주의와 러시아 반동 세력의 압력이 거셀 당시에 旅俄華工을 모아 홍군에 참가하여 전쟁을 지원하거나 후방에서 보위하는 공작을 수행하였다.

또한 러시아공산당은 양명재를 모스크바에 있는 대학³⁷⁾에 보내어 마르

36) 李丹陽, 劉建一 「“革命局”辨析」, 『史學集刊』, 2004 第3期, 39쪽.

37) 余世誠, 張升善 編著, 『楊明齋』, 新華書店, 1988, 5쪽. 현재 양명재가 모스크바 어느 대학에서 공부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余世誠, 張升善의 연구에는 양명재가 ‘모스크바 동방노동자 공산주의대학’에서 공부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양명재가 동방대학에서 수학한 시기는 1920년 4월 보이틴스키와 함께 북경에 오기 전인데, 이때 동방대학은 아직 설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동방대학의 전신은 1920년 8월 동방전선 제5군 국제단이 전문적으로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창립한 학교로 이후에 동방전선 제5군이 시베리아 군구 정치관리국과 연합하여 세운 國際黨校이다. 국제당교에서는 오로지 중국 반을 설치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 기초 지식을 강의하였다. 그러나 이 학교는 조직 관리가 느슨하여 각지의 華工과 동방 각 민족 혁명분자를 양성하기 위한 일정한 규모를 갖춘 종합대학 건립이 시급했다(張澤宇(2009), 앞의 글. 111~113쪽).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 동방대학 건립이 추진되었고, 1921년 5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동방대학이 설립

크스-레닌주의를 체계적으로 배우도록 하였고, 이 때 그의 사상은 성숙해졌다. 그는 그곳에서 수학한 이후 러시아공산당의 명을 받아 당시 일본의 점령 하에 있었던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가 비밀공작을 하였다. 러시아공산당은 양명재의 활발한 공작 활동과 더불어 사상적 수준, 유창한 러시아어 구사 능력, 旅俄華僑로서 소비에트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이해가 깊어 중국혁명가들과의 접촉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그를 보이틴스키의 참모이자 안내자로서 추천했다.³⁸⁾ 양명재는 이후에 상해외국어학사 교장을 맡아 제1세대 소련유학생 형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후에 하얼빈에서 온 스테파노비치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온 사하야노바가 보이틴스키 일행에 합류하였다. 스테파노비치(가명 미노르)는 러시아인이 아니라 한인으로 한국 이름은 金萬謙이다. 그는 연해주 이주민 2세로서 적극적으로 항일운동에 참가한 인물이다. 그는 러시아 당국자들과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사하야노바와도 친분이 있었는데, 그들은 김만겸이 연해주 지역의 일제 탄압으로 인해 지하활동을 하던 중에 만났다. 김만겸은 1920년 5월 무렵 상해로 출발하였는데, 빌렌스키가 그를 파견한 것이었다.

그는 상해에 도착한 후에 코민테른 동아서기처 조선혁명국의 공작을 총괄했다. 그의 주요 임무는 상해에 한인을 중심으로 임시중앙을 조직하여 공산주의 선전활동을 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上海俄文生活報』 발행에도 관계했으며 공식적으로 이 신문사로부터 월급을 받아 생활하였다.³⁹⁾ 그리고 보이틴스키의 명을 받아 폴레보이와 함께 북경혁명국을 설립하였고, 나중에 광주로 파견되어 광주혁명국을 설립하였다.

보이틴스키 일행은 1920년 3월 무렵,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해 하얼빈 천진을 거쳐 4월쯤 북경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중국 국내 정세에

되었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철저한 고증 없이 양명재가 10월 혁명 이후 모스크바 동방노동자 공산주의대학에서 수학했다고 옮겨 쓰고 있다.

38) 余世誠, 張升善 編著(1988), 앞의 글, 1~6쪽.

39) 윤상원, 「1920년대 초반 러시아의 한인사회주의자들과 코민테른-김만겸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16호, 2006, 12~26쪽.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당시 중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던 러시아교민들을 통해 5·4 운동 등의 상황과 중국 소식을 들었다. 특히 북경대학의 교수였던 이바노프와 폴레보이를 통해 중국의 사정을 이해했는데, 두 사람은 보이틴스키에게 평소 러시아혁명에 호감을 품고 있었던 이대조를 소개시켜주었다.⁴⁰⁾

보이틴스키는 이대조를 비롯하여 많은 중국혁명가들과 여러 차례 좌담회를 가졌고, 10월 혁명 이후 소비에트 러시아의 실제 상황과 기타 정책들을 소개하였다.⁴¹⁾ 당시 보이틴스키와 접촉한 중국 청년들은 劉仁靜 鄧中夏 李梅羹 張國燾 羅章龍 등이 있었다.⁴²⁾

그 중에서 유인정과 장국도는 1926년과 1928년에 모스크바 레닌학원에서 유학을 한 인물이다. 레닌학원은 1925년 말 코민테른이 각국 공산당의 고급간부를 전문적으로 배양시키기 위해 설립한 黨校였다. 1927년 4월 보이틴스키는 진독수에게 편지를 보내어 중국유학생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알렸다. 이에 중공중앙은 유인정을 레닌학원에 파견했으며, 蔡和森 또한 이곳에서 공부하였다. 아울러 모스크바 중산대학을 졸업한 俞秀松 王若飛 董必武 吳玉章 등도 이곳에서 유학하였다.⁴³⁾ 이처럼 북경에서 첫 번째 공식사절인 보이틴스키 일행을 만나서 혁명이후의 소비에트 러시아 상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접한 청년들은 차츰 소비에트 러시아 유학을 열망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이대조는 보이틴스키에게 북경이 혁명 활동을 하기에 미흡한 점을 들면서 상해로 가서 혁명을 수행하기를 추천했다. 상해는 당시 국제도시로 교통이 편리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최대의 공업중심지로 이른 시기부터 노동자 계급이 형성된 곳이었고, 진독수가 이미 상해에서 중국청년들과 함께 혁명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40) 張國燾(1991), 앞의 글, 85~86쪽; 「包惠僧談維經斯基」, 앞의 글(1982), 437쪽; (蘇)C.A. 達林, 『中國回憶錄1921-1927』,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1, 26쪽.

41) 楊云若(1982), 「維金斯基來華後主要活動」, 앞의 글, 461쪽.

42) 이찬원, 「북경공산주의소조와 활동」, 『숭실사학』 14집, 2001, 114쪽.

43) 張澤宇(2009), 앞의 글, 134~136쪽.

이러한 이유로 1920년 5월 보이틴스키 일행은 이대조의 소개장을 가지고 진독수를 만나기 위해 상해로 떠났다. 북경에는 그 일행이었던 마마예프 부부가 남아 폴레보이 등과 공작 활동을 펼쳤다. 폴레보이와 마마예프 부부는 이대조를 중심으로 黃凌霜 鄭佩剛 華林과 함께 북경사회주의자동맹 조직에 참여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인물은 화림이다. 화림은 1920년대 대표적인 아나키스트로 留法勤工儉學運動에 참여하였다. 또한 眞社の 주요인물로서 『新春秋』의 편집인이었는데, 그는 간행물 상에서 아나키즘을 선전하였다. 그가 신문화운동 시기에 천진에서 진행한 선전활동은 당시 청년들에게 사상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⁴⁴⁾ 이후에 화림은 상해외국어학사에 입학하여 제 1세대 유학생 무리에 선발되어 소비에트 러시아로 유학을 떠났다.

요컨대 북경지역에서의 소비에트 러시아에 대한 청년들의 호의적인 분위기는 10월 혁명의 영향을 받은 지식분자인李大釗 陳獨秀 毛澤東 등의 마르크스주의 연구와 러시아 현지 상황에 대한 선구적인 관심이 기반이 되어 조성된 것이었다.⁴⁵⁾ 이러한 선진 지식분자들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교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러시아혁명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북경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한 이바노프와 폴레보이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이후 보이틴스키 일행이 북경을 방문하면서 청년들의 소비에트 러시아에 대한 열망에 불을 지폈고, 당시 러시아혁명을 흠모한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소비에트 러시아로 유학을 떠나고 싶어 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인식한 보이틴스키 일행은 상해로 떠나 소비에트 러시아 유학 파견을 위한 조직 활동에 착수하게 된다.

44) 劉清揚, 「對“覺悟社”等問題的解答(1957年1月14日)」, 『“一大” 前後』(二), 人民出版社, 1980, 230쪽.

45) (日)石川禎浩著, 袁廣泉譯(2006), 앞의 글, 48~53쪽.; 梁奎松, 『中間地帶的革命-國際大背景下看中共成功之道』, 山西出版集團 · 山西人民出版社, 2010, 11~17쪽.

2. 上海에 파견된 러시아 밀사와 보이틴스키 일행의 활동

보이틴스키 일행이 북경을 떠나 1920년 5월 상해로 오기 전, 북경과 마찬가지로 상해에서도 다수의 러시아 교민들이 혁명 공작을 하고 있었다. 세메쉬코프(Semeshikov) 호도로프(Hodoroff) 스테파니(V. A. Stepany) 등이 바로 그들이다.

특히 세메쉬코프와 호도로프는 클라싱(Klassing) 톨스토프(Tolstoff)와 함께 19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상해로 왔다고 한다. 먼저 세메쉬코프는 상해로 온 뒤 1919년 9월에 『上海俄文生活報』를 창간하고 상해 관련 당국에 정식으로 등록했다.⁴⁶⁾ 빌렌스키는 1920년 2월 본래 진보 간행물이었던 『상해아문생활보』를 인수하여 원동 각국 인민(한 중 일)과 원동의 러시아 교민에게 선전활동을 하였다. 주편은 여전히 세메쉬코프에게 맡겼다. 이를 계기로 『상해아문생활보』는 볼셰비키 기관지로 변모하였고, 이곳은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파견된 많은 인물들과 중국의 러시아 교민이 활동하는 근거지가 되었다. 아울러 『상해아문생활보』는 상해를 제외하고 중국 기타 대도시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교민들의 주요 통신연락망이었는데, 북경에서 활동한 이바노프는 일찍이 이 신문과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⁴⁷⁾

『상해아문생활보』를 근거로 활동했던 인물 중에서는 상해에서 일부 청년들에게 소비에트 러시아로 유학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해준 스테파니의 활동에 주목할 만하다. 스테파니는 아나르코-볼셰비키로서 1919년 겨울 중국에 왔다. 그는 『상해아문생활보』 신문사 簿記員이자 신문기자 신분으로 여러 공작을 수행하였다. 스테파니는 특히 중국에서 아나 · 볼 합작을 위해 상해사회주의자동맹에 참여했고, 또 상해에서 陸式楷와 함께 新華學校를 세워 에스페란토(세계어)를 전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⁴⁸⁾

46) 『上海俄文生活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李丹陽, 劉建一, 「《上海俄文生活報》與布爾什維克早期在華活動」, 『近代史研究』, 2003 第2期를 참고.

47) 李丹陽 劉建一(2003 第2期), 앞의 글, 5~7, 25쪽.

호도로프는 상해에 도착한 뒤 『상해아문생활보』에서 일정기간 공작을 하였다. 이후 천진으로 북상하여 1920년 6월 초 소비에트 러시아 로스타-달타(Rosta&Dalta)⁴⁹⁾ 駐北京分社(별칭 華俄通迅社)를 설립하고 사장 신분으로 혁명 활동을 수행했다. 로스타-달타 주북경분사는 중국 각지에 설립되는 로스타-달타사의 분사를 총지휘했다. 로스타-달타 주북경분사, 즉 북경 화아통신사(이하 북경 화아통신사)의 공작원은 러시아인뿐 만 아니라 중국인도 있었다.

중국인 중에서 유능한 고용원은 黃平和 薛撼岳이 있었는데, 특히 황평은 1923년 9월 북경 화아통신사에서 영어번역 일에 종사한 인연으로 호도로프의 소개를 받아 동방대학에서 유학하였다.⁵⁰⁾ 벽감악의 경우 화아통신사에서 번역 작업을 하다가 호도로프의 소개로 이후에 吳佩孚의 외교부장을 맡게 되었다. 그는 南開大學 학생으로 周恩來와 같은 반 친구였고, 覺悟社에서 활동한 아나키스트였다.⁵¹⁾ 벽감악과 같은 각오사 동료였던 梁乃賢도 화아통신사에서 번역 작업에 참여했다. 벽감악과 양내현은 이대조의 소개로 화아통신사 공작에 참여하였다고 한다.⁵²⁾ 벽감악이 떠난 이후에는 그 자리를 劉仁靜과 阮某(?)⁵³⁾ 李某(?)가 대신하여 통신사 일에 참가하였다.⁵⁴⁾ 유인정은 북경 화아통신사에서 북경신문사의 소식을 영어로 번역했고 다른 이가 그것을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전보를 통해 모스크바로 보냈다고 회고했다.⁵⁵⁾

48) 李丹陽 劉建一, 「一個『安那其布爾什維克』的悲劇-斯托帕尼在上海」, 『百年潮』, 2003 第3期, 47~48쪽.

49) 로스타-달타(Rosta&Dalta)사에 대해서는 李丹陽, 劉建一, 「霍多洛夫與蘇俄在華最早設立的電訊社」, 『民國檔案』, 2001, 53쪽을 참고.

50) 黃平, 『往事回憶』, 人民出版社, 1981, 6쪽.

51) 譚小岑, 「五四運動中產生的天津覺悟社」, 『五四運動回憶錄』,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79, 579쪽.

52) 李丹陽, 劉建一(2001), 앞의 글, 54쪽.

53) 이단양 유건일은 황평이 회고록에서 말한 阮某가 1922년 말 북경에서 이대조와 함께 사회주의청년단에서 활동했고, 유인정과 함께 보궐선거에서 단 중앙위원으로 피선된 阮永釗라고 하였다(李丹陽, 劉建一(2001), 앞의 글, 60쪽 각주30).

54) 黃平(1981), 앞의 글, 3~4쪽.

55) 余世誠, 「楊明齋在早期中國革命中的活動」, 앞의 자료집(1989), 60쪽.

호도로프는 1920년 7월과 11월 북경 화아통신사 대표신분으로 각각 상해와 광주를 방문하여 그 지방 언론계 인사들을 만났고, 상해와 광주에 로스타-달타 분사를 설립하는 공작에 착수했다. 얼마 후 상해와 광주에 로스타-달타 분사가 설립되는데, 상해에서는 보이틴스키의 지도하에 양명재가 이 분사를 주관하였고 외국어학사와 함께 霞飛路 新漁陽里 6호에 설립되었다.⁵⁶⁾

1920년 5월 보이틴스키 일행은 상해에 도착한 뒤, 진독수를 비롯하여 여러 진보적인 혁명가들과 교류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이틴스키는 중국 국내의 상황을 이해한 후 대략 다음 네 가지 목표를 세웠다. 첫째, 공산주의(사회주의) 소조를 건립하는 것에 협조하여, 장차 이러한 소조들을 모아 공산주의(사회주의) 정당을 수립한다. 둘째, 지식분자 조직을 통해 노동자와 관계를 맺는다. 셋째, 각 혁명 파벌의 활동에 협조하는데, 여기에는 아나키스트와 국민당을 포함한다.⁵⁷⁾ 마지막으로 중국 진보청년들을 물색해 모스크바 동방노동자 공산주의 대학에 보내 학습케 하고 아울러 러시아에 견학(游歷) 시킬 청년을 선발한다는 것이었다.⁵⁸⁾

보이틴스키가 혁명 활동에서 아나키스트와 국민당을 포함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한 배경에는 당시 중국에 공산주의자 세력이 미약했던 반면에 아나키스트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주의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중국의 아나키스트들과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사회혁명을 추진하려고 하였고, 보이틴스키를 비롯한 볼셰비키들은 아나키스트들과 함께 조직한 단체가 중국에 공산주의(사회주의) 정당을 건립하는 기초로 변모하길 기대했다.⁵⁹⁾

게다가 보이틴스키 일행의 중국방문 전부터 활동하고 있었던 러시아 밀사들 대부분이 아나키즘 경향이 강했던 까닭에 이들은 늦어도 1919년부터

56) 李丹陽, 劉建一(2001), 앞의 글, 52~54쪽.

57) 中國共產黨第一次代表大會前後資料選編, 「中國共產黨成立史」, 『“一大”前後』(三), 人民出版社, 1984, 155쪽.

58) 楊云若(1982), 「維金斯基來華前簡歷」, 앞의 글, 460쪽 각주4.

59) 李丹陽, 「AB合作在中國個案研究-眞(理)社兼及其他」, 『近代史研究』, 2001 第1期, 62쪽.

천진 북경 상해에서 많은 중국의 ана키스트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⁶⁰⁾ 러시아 밀사들과 접촉한 ана키스트들은 러시아 혁명에 대부분 공감하였고, ана키즘 혁명의 선구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자유공산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어 이후의 ана · 볼 분열에 원인이 된다. 많은 ана키스트들은 비록 러시아 혁명이 불완전한 혁명이지만, 소비에트 정부가 하루 빨리 발전해 자유공산주의의 이상에 도달하길 희망하였기 때문에 ана · 볼 합작이라는 명분 아래 중국공산당 창립과정에서 조직된 여러 단체에 참여하였다.⁶¹⁾ 또한 직접 소비에트 러시아의 현지상황을 보기 위해 많은 이들이 유학길에 올랐다.

이와 동시에 보이틴스키 일행은 중국 청년들을 소비에트 러시아로 유학 보내기 위한 조직을 건립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보이틴스키의 유학 파견 활동은 상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러시아밀사를 각지에 파견하고 중국 혁명가들과 연계를 맺어 전국에서 진보적인 청년들이 소비에트 러시아 유학길에 오를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였다.

보이틴스키 일행은 상술한 목적을 가지고 중국혁명가들과 연계를 통해 1920년 5월 마르크스주의연구회를 성립시켰다. 당시 진독수는 보이틴스키에게 『星期評論』 『時事新報』 『覺悟』의 동료들은 물론, 상해의 진보 인사들을 고루 소개시켰다.⁶²⁾ 몇 차례 모임 결과 성립된 마르크스주의연구회에는 陳獨秀 李漢俊 楊明齋 沈玄廬 陳望道 施存統 俞秀松 戴季陶 張東蓀 沈仲九 劉大白 陳公培 邵力子 등이 참가하였다.⁶³⁾

상해 마르크스주의 연구회의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초보적인 공산주의자 뿐만 아니라 ана키스트 국민당당원 등이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양

60) 李丹陽, (2001 第1期), 앞의 글, 52쪽.

61) 조세현, 「보이틴스키의 중국 방문과 ‘社會主義者同盟’-중국공산당 창립시기 ана키즘 · 볼셰비즘 합작과 분열-」, 『중국사연구』 제36집, 2005, 210~213쪽.

62) 楊云若(1982), 「維金斯基來華後主要活動」, 앞의 글, 461~462쪽.

63) 「李達談維金斯基」, 앞의 글(1982), 431~432쪽.; 「陳公培談維金斯基」, 앞의 글(1982), 436쪽. 「包惠僧談維金斯基」, 앞의 글(1982), 437~438쪽.; 「周佛海關於維金斯基的回憶」, 앞의 글(1982), 455~456쪽.

한 사상적 견해를 가진 이들의 참가는 이 조직에 대한 기억의 혼선을 가져왔다. 초보적인 공산주의자들은 상해에서 조직된 마르크스주의연구회를 중국공산당 창립활동으로 기억하고 있었다.⁶⁴⁾ 반면에 아나키스트의 경우, 이 연구회가 처음 건립될 때 상해지역의 사회주의자동맹이 조직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한다. 이러한 기억의 혼선은 각지에 설립된 공산주의소조의 성립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

한편, 1920년 5월 빌렌스키의 지시에 따라 보이틴스키는 상해에 코민테른 동아서기처를 설립하였다. 이것은 이미 전개된 혁명 활동을 지도하기 위해 설립한 임시적인 성격을 띤 기구였다.⁶⁵⁾ 여기에서 이미 전개된 활동이라 함은 보이틴스키가 상해에 오기 전, 러시아 밀사들이 독자적으로 중국혁명가들과 펼친 활동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당시 중국의 혁명 활동은 상당히 분산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보이틴스키가 블라디보스토크 분국에 보고한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⁶⁶⁾

코민테른 동아서기처의 설립목적은 분산된 혁명 활동을 코민테른 동아서기처로 집중시켜 좀 더 효율적인 혁명공작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중국의 혁명 활동에 대한 집중과 더불어 조선과 일본에 대한 혁명공작을 실행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그래서 코민테른 동아서기처가 설립된 후에 그 하부조직으로 중국과 조선과가 설치되었고, 일본과는 곧 설립될 예정이었다. 보이틴스키는 3개의 과를 중국혁명국(상해혁명국) 조선혁명국 등의 명칭으로 시베리아 동방민족처에 보고하였다.⁶⁷⁾

64) 지금까지도 상해공산주의소조의 명칭, 정확한 성립 시기, 구체적인 성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한 연구자는 그 이유에 대해 상해공산주의소조가 1920년 5월 마르크스주의연구회 성립 이후 상당히 긴 과정을 거치면서 성립되었으므로 그 참가자 사이에 기억의 착오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조훈, 「상해공산주의소조연구사」, 『성대사림』 11, 1995를 참고).

65) 中共中央黨史研究室第一研究部 譯, 「維連斯基-西比里亞科夫就國外東亞人民工作給共產國際執委會的報告」(1920年9月1日于莫斯科), 『聯共(布), 共產國際與中國國民革命運動(1920-1925)』, 北京圖書館出版社, 1997, 38쪽.

66) 中共中央黨史研究室第一研究部 譯(1997), 「維經斯基給某人的信」(1920年6月1日于上海), 앞의 자료집, 28쪽.

67) 中共中央黨史研究室第一研究部 譯(1997), 「維經斯基給俄共(布)中央西伯利亞局東方民族處的信」(1920年8月17日于上海), 앞의 자료집, 31쪽.; 李丹陽 劉建一(2004 第3期), 앞의

상해혁명국의 구성원은 보이틴스키 陳獨秀 李漢俊이었다. 또한 李中이나 李啓漢과 俞秀松이 참가했을 가능성도 있다. 상해혁명국이 설립된 이후 북경 광주 무한에서도 혁명국이 설립되었다. 특히 북경혁명국은 폴레 보이와 스테파노비치(김만겸)가 합작하여 설립되었는데, 이대조도 이 조직에 참가하였다.

각지의 혁명국은 출판 선전 조직 부서를 설치하여 중국에서 공산당을 창립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펼쳤다. 특히 선전부문에서는 각지에 화아통신사를 세워 공작을 수행했다. 북경의 화아통신사는 상술한 호도로프를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상해에서는 북경화아통신사의 분사로 상해화아통신사가 설립되어 양명재의 책임 하에 상해혁명국의 선전임무를 수행하였다. 화아통신사의 임무 가운데 하나는 중국에서 출판 발행되는 소식과 문장을 수집하여 영어 러시아어로 번역한 후에 치타와 모스크바로 보내는 것이었다. 또한 『新青年』 『民國日報』 등 간행물에 러시아혁명을 소개한 원고를 보내어 발표토록 하는 것이었다.⁶⁸⁾

화아통신사의 이러한 임무는 『상해아문생활보』의 공작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상해아문생활보』는 코민테른동아서기처의 암호기관으로서 이 신문사에서 활동한 많은 러시아 밀사들이 동아서기처의 공작에 협조했다.⁶⁹⁾ 이 신문의 주요 임무는 한 중 일 언어로 된 출판물을 발행하고 원동 각국 인민에게 선전활동을 하는 동시에 러시아어로 된 출판물로 원동의 많은 러시아교민들에게 선전활동을 하는 것이었다.⁷⁰⁾

1920년 7월 4일 빌렌스키가 직접 북경에 왔다. 그는 원동공화국 유린사절단 비서 신분으로 “工商실업상황을 시찰한다”는 명분하에 사절단보다 먼저 중국에 도착하였다. 빌렌스키는 사전에 천진 상해 등지에서 활동하

글, 40쪽. 혁명국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쟁이 존재한다. 혁명국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는 조세현, 「중국공산당 창립에 영향을 미친 한인 사회주의자들-러시아 공산당 · 코민테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于湖 全海宗先生 九旬紀念 韓中關係史論叢』, 2007, 606~607쪽 각주 38~39 참고.

68) 余世誠(1989), 「楊明齋在早期中國革命中的活動 (節錄)」, 앞의 자료집, 60쪽.

69) 李丹陽 劉建一(2004), 앞의 글, 41~46쪽.

70) 李丹陽 劉建一(2003 第2期), 앞의 글, 7쪽.

는 러시아공산당원에게 전보를 보내어 그들을 북경으로 소집하였다.

7월 5일부터 7일까지 재화러시아공산당원 제 1차 대표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천진 북경에서 활동한 스테파노비치(김만겸) 폴레보이와 상해에서 활동한 보이틴스키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⁷¹⁾ 이후에 보이틴스키 폴레보이 스테파노비치(김만겸)는 8월말 북경으로 온 원동공화국 주화사절단 단장 유린을 만나 중국에서 진행된 각종 혁명 활동에 대해서 연대했을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공산당원들은 자신들이 수행한 활동성과를 보고하였고, 곧 거행될 중국공산주의조직대표대회와 중국공산당 창립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회의가 개최된 후에 1920년 7월에서 8월 사이 코민테른 동아서기처 하부조직인 혁명국의 지도아래 중국공산당을 창립하려는 보조는 확실히 빨라졌다.⁷²⁾

보이틴스키는 북경 회의를 마치고 상해로 돌아온 뒤, 중국혁명가들에게 중국공산당 창립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1920년 8월 陳獨秀를 비롯한 楊明齋 李漢俊 沈玄廬 李達 陳望道 施存統 俞秀松 등이 『신청년』 사무실에서 중공 상해공산주의소조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상해공산주의소조의 활동은 상해혁명국과 구별되지 않았고, 초보적인 공산주의자와 아나키스트들이 합작하는 형식으로 조직되었다.

동시에 1920년 8월 22일에는 보이틴스키 楊明齋 陳獨秀 등이 俞秀松 李漢俊 陳望道 袁振英 施存統 沈玄廬 金家鳳⁷³⁾ 葉天底 등을 모아 사회주의 청년단을 설립하였다. 당시 코민테른 하부 조직의 하나인 청년 코민테른은 공산주의 청년조직을 각국에 만드는 것이 주요 임무였는데, 그 결과 중국에서도 사회주의청년단이 만들어진 것이다. 사회주의청년단 서기는 나이가 가장 어린 유수송이 담당했다. 머지않아 상해외국어학사에서 소비

71) 李丹陽 劉建一(2003 第2期), 앞의 글, 14쪽.; 肖甦(2002 第1期), 앞의 글, 26쪽.

72) 「維連斯基-西比里亞科夫就國外東亞人民工作給共產國際執委會的報告」(1920年9月1日于莫斯科), 앞의 자료집, (1997), 41-42쪽.; (日)石川禎浩, 袁廣泉 譯(2006), 앞의 글, 99~104쪽.

73) 김가봉은 중국학계에서는 蘇州 吳縣用直人으로 사회주의청년단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주로 상해에서 혁명 활동을 전개한 인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한 학자는 김가봉이 중국에서 활동한 한인이라고 주장한다(조세현(2007), 앞의 글, 610쪽).

에트 러시아 유학을 준비하는 다수의 청년들이 사회주의청년단에 가입하였다.

상해사회주의청년단은 단원 충원을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확충했다. 이것은 상해공산주의소조 주도 하에 운영된 외국어학사의 학생 충원 방식과 같았다. 각지의 사회주의적 지향을 가진 청년학생들이 同鄉 同學 등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입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회주의청년단 내부 사상은 다양했다.⁷⁴⁾

그래서 상해사회주의청년단의 활동은 사회주의자동맹과 같이 통일전선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고 수적으로 아나키스트가 많았다고 한다. 이 두 조직의 차이가 거의 구분되지 않아 사회주의청년단에 대해서도 초보적인 공산주의자들과 아나키스트들의 기억의 차이가 나타났다. 초보적인 공산주의자들은 청년단 활동을 공산당 창립 활동 중 하나로 기억했고, 아나키스트들은 이 조직을 사회주의자동맹의 연장선상으로 인식했다고 한다.⁷⁵⁾

상해공산주의소조와 상해사회주의청년단이 조직된 이후 이들의 활동을 엄호하기 위한 기관으로 1920년 9월 상해외국어학사가 설립되었다. 외국어학사는 중국혁명간부를 양성하고 소비에트 러시아로 청년들을 유학 보내는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기관이었다. 이 기관은 중국공산당 창립시기 활동한 초기 혁명가들을 배양해낸 곳으로 이곳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상해지역은 중국에서 진보적인 청년들이 가장 활발하게 혁명 활동을 수행한 지역으로 러시아 밀사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지리적 정치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경과 마찬가지로 상해에서는 보이틴스키 일행의 방문 이전 활동하였던 세메쉬코프, 호도로프, 스테파니의 소련유학생 형성에 대한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이 기반이 되어 보이틴스키 일행이 상해로 왔을 때, 중국 혁명가들과의 연계를 통해 이전보다 체계적인 조직을 건립하여 혁명 활동을

74) 정문상, 「國共合作 이전 上海 中國社會主義青年團의 청년운동 모색과 그 실상」, 『동양사학연구』 제67집, 1999, 111~112쪽.

75) 조세현(2005), 앞의 글, 230쪽.

할 수 있었다. 특히 청년들의 소비에트 러시아 유학을 위한 상해외국어학사 설립은 상해의 중국 혁명가들뿐 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활동한 러시아 밀사들과 보이틴스키가 함께 만들어낸 산물이었다. 1920년 중반 무렵 상해외국어학사를 비롯한 소련유학생을 파견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직들이 설립된 이후, 북경 상해 각지에서는 대규모 청년들이 본격적으로 유학을 떠날 준비를 하였고, 각각 무리를 나누어 혁명의 본고장인 소비에트 러시아로 떠났다.

III. 제 1세대 소련유학생 형성 및 파견과정

1. 北京에서 소련으로 떠난 『晨報』 기자단

소련유학생의 형성 배경에는 러시아 밀사들이 중국혁명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행했던 활동뿐 만 아니라 당시 중국 신문계의 보도활동도 큰 영향을 미쳤다. 언론의 영향력이 광범위함을 고려해 볼 때, 신문보도는 청년들이 소비에트 러시아에 대한 동경과 소비에트 러시아로 직접 가길 열망했던 당시 분위기 조성에 매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당시 수많은 신문들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은 『晨報』와 『時事新報』이다. 그 이유는 북경 지역에서 1920년대 초기 가장 먼저 소비에트 러시아로 떠난 이들이 『신보』와 『시사신보』에서 파견한 특파원들이었기 때문이다.

1920년 10월 16일 새벽 瞿秋白 俞松華 李仲武는 『신보』 『시사신보』가 임명한 특파원 신분으로 소비에트 러시아로 떠났다. 이중무는 구추백이 北京俄門專修館에서 수학할 당시 동창이었고, 유송화는 『시사신보』 편집인이었다.

신문화운동시기 신문은 신사조를 전파하는 중요한 매개물이었다. 특히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의 관심이 혁명러시아의 실제 상황으로 쏠리자, 각종 신문들은 앞다투어 러시아혁명의 역사와 상황을 소개했다. 『신청년』 월간은 8권 1호부터 「俄羅斯研究」 특별란을 실어 영국 미

국 프랑스 등지의 간행물 상에 나타난 소비에트 러시아 상황관련 자료를 수집 번역하여 실었다. 동일한 시기 『每週評論』 『曙光』 『蘇聯世界』 등의 간행물들도 유사한 문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것은 유럽의 시각이 투영된 소비에트 러시아 상황을 번역한 것에 불과했다. 유럽의 간행물들은 러시아 혁명에 대해 공산주의를 '과격주의'로, 볼셰비키당을 '가난한 당'으로 규정했으며, 소비에트 러시아를 '배고픈 고향'으로 묘사했다. 또한 소비에트 러시아의 내전과 외국의 무장간섭을 과장해서 보도하였다.⁷⁶⁾ 이러한 굴절된 시각은 중국에도 그대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신문계는 10월 혁명 첫날부터 교통장애 白匪반란 등의 문제로 인해 러시아와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러시아 현지에서 발행되는 일차자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유럽으로부터의 정보라도 절실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 『신보』는 1918년 2월 9일 「특별고시」에서 러시아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등지의 유학생을 초청해 매월 두세 차례 받은 통신을 토대로 세계 각국의 사정을 연구하는 데에 참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⁷⁷⁾ 그러나 각지의 유학생들이 보낸 통신만으로 실제 러시아혁명에 대한 진상을 알기는 어려웠다. 이에 따라 1920년 10월 막 유럽을 고찰하고 돌아온 梁啓超의 추진 하에 『신보』는 『시사신보』와 연합하여 러시아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 駐外기자를 파견하는 일을 추진했다. 1920년 11월 27-28일 두 신문은 공동으로 신문기자를 선발하여 구미로 파견한 일을 발표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⁷⁸⁾

우리나라 신문은 특파원을 외국에 파견한 적이 없었다. 각국의 실상에 대한 취재내용은 구미 신문을 매우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의 대략적인 상황을 연구하기 어려운 까닭에 (세계 정세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우리 신문계

76) 左貞, 「瞿秋白《晨報》通迅初探」, 『新聞大學』, 1984, 58쪽.

77) 藍鴻文, 「歷史的使命-瞿秋白赴蘇俄採訪研究之一」, 『新聞研究』, 1989, 44쪽.

78) 張秋實, 『瞿秋白與共產國際』, 中共黨史出版社, 2004, 2쪽, 재인용.

의 큰 결함이 되었다. 우리 두 신문은 이에 비추어 경비를 모아 전문 인원을 보내려고 한다. 구미 각국으로 나누어 파견하여 통신에 관한 일을 조사하도록 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천직을 다하고 신문계의 신세기를 열게 될 것이다.

이 기사 말미에는 두 신문이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에 파견한 특파원 8명의 명단을 열거했다. 미국 프랑스 독일은 각 1명 영국은 2명 소비에트 러시아는 3명이 파견되었다. 소비에트 러시아에 파견된 특파원이 가장 많았다는 사실은 당시 사람들이 신생 러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컸는지 잘 보여준다.

『신보』가 구추백을 소비에트 러시아 특파원으로 선발한 이유는 현재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그가 특파원으로 선발된 이유를 다섯 가지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그의 유창한 러시아어 실력 때문이었다. 구추백은 1917년 9월 북경정부외교부가 설립한 아문전수관에 입학하였다. 사실 그는 북경대학 시험에 응시하고 싶었으나 당시 생활고로 인해 학비가 공짜인 북경아문전수관을 택했다고 한다. 북경아문전수관은 본래 東省鐵路學堂이었으나 민국원년(1912년) 외교부가 아문전수관으로 개칭한 곳이다. 구추백은 이곳에서 러시아어를 공부했고, 영어와 프랑스어를 독학하였다.⁷⁹⁾ 구추백이 『신보』 기자로 선발될 당시에 3년여 기간 동안 갈고 닦은 월등한 러시아어 실력이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그 당시에 중국 인민 중에서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신문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면서 맺은 『신보』와의 인연 때문이었다. 구추백은 5·4 운동 중에 북경아문전수관 학생회 책임자로 피선되어 全國學生聯合會에 참가하였다. 그는 북경당국에 한 차례 체포되었는데, 출옥 후에 『신보』(1919년 7월 17일)에 「不簽字之辦法」이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이 글은 북경정부가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한 대표

79) 陳鐵健, 『瞿秋白傳』, 紅旗出版社, 2009, 37~38쪽.

가 산동문제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지 못하도록 여론의 압박이 거셌던 상황에서 정부 국민 학생들이 취해야할 자세를 서술한 것이었다. 이 글을 시작으로 구추백과 『신보』의 인연은 계속되었다.

세 번째는 구추백의 신문공작 경험 때문이었다. 1919년 11월 구추백은 鄭振鐸 耿濟之 許地山 瞿菊農(구추백의 먼 삼촌)등과 함께 『新社會』 旬刊을 창간했는데, 총 19기를 출판했다. 구추백은 이 간행물에 글과 번역문을 총 22편 발표했다. 『新社會』가 북경경찰청에 의해 폐간당한 후, 1920년 8월 구추백은 또 다시 『新社會』 발기인들과 함께 『人道』 月刊을 창간했지만 편집인원 사이에 사상 분열과 경비부족으로 오직 1기만 인쇄하고 정간하였다.⁸⁰⁾

네 번째는 그가 소비에트 러시아로 떠나기 전 이미 초보적인 공산주의관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19년 5·4 운동 중에 張西曼과 蔡元培(북경대 교장) 李大釗(임시 북경대 도서관주임) 등이 ‘사회주의연구회’를 건립했다.⁸¹⁾ 장서만은 일찍이 同盟會員으로 10월 혁명 전후 세 차례 러시아를 방문하였는데, 이때 공산주의와 러시아혁명에 대한 상황을 이해했다고 한다. 그는 1919년 하반기에 북경대학 러시아어과 교수로 초빙되어 러시아혁명과 사회주의를 연구하고 선전하기 위해 비밀리에 사회주의연구회를 건립하였다. 이 연구회 활동은 이대조가 주임을 맡은 북경대 도서관에서 진행되었는데, 구추백도 열심히 연구 토론활동에 참가했다. 그러나 이 연구회는 참가자의 사상불일치로 6개월 만에 해산하였다. 또한 1920년 3월 구추백은 이대조가 발기한 ‘북경마르크스학설연구회’에 참가하였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초보적인 공산주의로 변모하였다.

다섯 번째는 당시 『신보』 편집 사무를 주관한 이가 구추백의 동창 孫九畝의 세 번째 숙부인 孫光圻였다. 손구록은 러시아어를 몰랐기 때문에 비록 소비에트 러시아에 관심이 있었지만, 『신보』 기자의 초빙조건에는 부

80) 藍鴻文(1989), 앞의 글, 45쪽.; 陳鐵健(2009), 앞의 글, 54쪽.

81) 姚雪垠 主編, 張西曼 著, 『歷史回憶』, 東方書社 1949, 3쪽. 장서만이 북경대 러시아어과 교수로 재직했던 시기에 이바노프와 폴레보이도 함께 근무하였기 때문에 서로 친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가 숙부에게 전력을 다해 구추백을 추천하였다. 게다가 구추백의 사촌형 瞿純白이 외교부 여권과에서 공작을 하여 구추백은 마침내 특파 기자 신분으로 러시아로 가서 고찰할 수 있었다.⁸²⁾

구추백을 비롯한 기자단의 여권 발급에 관해서는 자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구추백은 소비에트 러시아로 떠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여권을 발급 받은 상황을 이렇게 회고하였다.⁸³⁾

……1920년 10월 15일 밤 11-12시 즈음에 나는 北京飯店으로 가서 유린이 서명한 여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또 장서만의 회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⁸⁴⁾

……(플레보이는) 민국10년 전후 비밀리에 華北에서 소비에트 러시아로 간 중국청년(瞿秋白, 俞頌華, 李仲武, 凌鉞⁸⁵⁾(원문 강조)과 기타 많은 이) 모두에게 작은 직사각형 모양의 비밀 입국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유린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1920년 8월 말 원동공화국 사절단 단장의 신분으로 북경으로 온 인물이다. 원동공화국이 1920년 4월 건립된 목적은 소비에트 러시아와 일본과의 완충국으로서의 역할도 있었지만, 인접 국가들과 광범위한 외교관계를 맺어 소비에트 러시아 정권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이러한 사명을 띠고 중국에 파견된 유린 사절단은 북경정부와 체계적이고 영구적인 외교관계를 건립하고, 북경에 영사 사무 대표를 설치하는 동

82) 張秋實(2004), 앞의 글, 17쪽.

83) 瞿秋白, 「餓鄉紀程」, 『瞿秋白文集 文學編』第1卷, 人民文學出版社, 1985, 31~32쪽.

84) 姚雪垠 主編, 張西曼 著(1949), 앞의 글, 5쪽.

85) 능월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리고 장서만의 회고 이외에는 소비에트 러시아로 파견된 기자단 구성을 구추백 유송화 이중무 3인이라고 되어 있다. 능월이 실제로 기자단에 포함되었었는지는 좀더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시에 중국의 대표를 원동공화국에 상주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유린 사절단은 북경으로 진입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 이유는 북경정부가 소비에트 러시아 사절단 입국을 허용할 시에 발생할 열강의 간섭과 국내 정국의 동요에 대한 불안감으로 그들의 입국을 주저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북경정부는 비공식 대표단인 張斯麟 일행을 원동공화국 경내에 파견하여 유린 사절단 파견 목적의 진위와 소비에트 러시아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장사린 일행은 원동공화국에서 환대를 받았다. 그러나 유린 사절단은 계속해서 북경 진입에 장애를 겪자 유린은 북경정부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결국 북경정부는 유린 사절단이 정부 대표단이 아닌 상무위원 자격으로 북경에 온다면 입경을 허락한다고 했고, 마침내 유린 사절단은 원동공화국 상무 총대표 명의로 1920년 8월 말 북경으로 진입하였다.⁸⁶⁾

북경에 온 유린 사절단은 중국의 국내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당시 활동하고 있던 러시아 밀사들과 접촉하였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바노프와 호도로프였다. 이들을 통해서 유린 사절단은 그들의 또 다른 사명인 북경사회에서 활약하는 중외인사와 관계를 건립하는 활동을 전개하였고, 중외신문계와 외국국적 방문객과 밀접한 관계를 건립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원동공화국이 국제사회에서 영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고, 동시에 북경정부에게 유린 사절단의 지위를 더욱 강화시키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⁸⁷⁾

폴레보이는 유린 사절단이 보이틴스키에게 활동자금을 송금할 때 가운데서 중계 역할을 하였다.⁸⁸⁾ 이는 본문 II장에서 언급했듯이 원동지구위원회와 원동공화국의 관계를 볼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보이틴스키와 폴레보이는 원동지구위원회 블라디보스토크 분국 하에 활동 중이었고, 그

86) 黃紀蓮, 遠東共和國代表團使華史略(一)-遠東共和國使華代表團的組成與來華途徑, 『黑河學刊』, 1986 第1期, 56~58쪽.

87) 黃紀蓮, 「遠東共和國代表團使華史略(二)-尤林主持下的遠東共和國代表團在華外交活動」, 『黑河學刊』, 1986 第2期, 41~42쪽.

88) (日)石川禎浩, 袁廣泉 譯(2006), 앞의 글, 88쪽.

들의 중국 내 활동을 주관하는 빌렌스키가 원동공화국 사절단 비서 신분으로 북경에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동공화국 사절단의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아울러 소비에트 러시아로 청년들을 파견하는 공작에 대해서 여권과 경비 지급은 폴레보이가 모두 맡아서 처리하였다. 또한 조정화가 폴레보이와 구추백은 잘 아는 사이라고 회고한 사실에 근거해 볼 때⁸⁹⁾ 구추백을 비롯한 『신보』 기자단에게 실질적인 여권 업무 처리를 해주었던 것은 폴레보이이고, 최종 승인한 사람이 원동공화국 사절단 단장 유린이었다는 결론을 도출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추백과 장서만의 회고가 기억을 차이를 나타내는 듯하지만, 자세히 고찰해보면 같은 사실을 회고하고 있다.

그러나 폴레보이는 소비에트 러시아 유학 경비와 그 외 혁명 활동 경비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횡령을 하였다고 한다. 장서만은 폴레보이의 횡령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⁹⁰⁾

……그(폴레보이-필자)는 오히려 코민테른에게 많은 허위장부를 보고하였고 약간의 공금을 횡령하였다. 그의 상사가 그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곧 그를 귀국시켜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려고 했다. 그는 당의 기율과 규범이 삼엄한 것에 놀라 곧 소련국적을 포기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일본 세력이 北平으로 진입하던 혼란한 시기에 그는 단기간 체포된 듯했으나 이후 미국국적을 신청하여 여장을 꾸리고 바다를 건넜다…….

폴레보이의 소련유학생 형성에 대한 역할은 매우 컸지만, 그의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결코 칭찬할 수 없다. 그는 코민테른의 공금을 횡령했고, 그의 상사 즉 유린이 이 사실을 알고서 1921년 편지를 써서 폴레보이를 모스크바로 소환하여 처벌 받도록 요구했다고 한다.⁹¹⁾ 이로 인해 폴레보

89) 關山復, 「關於柏烈偉和伊凡諾夫的幾点情况」, 『黨史通訊』, 1984 第3期, 59쪽.

90) 姚雪垠 主編, 張西曼 著(1949), 앞의 자료집, 5쪽.

91) (日)石川禎浩, 袁廣泉 譯(2006), 앞의 글, 88쪽.

이는 강제 귀국 명령을 받았지만 처분이 두려워 미국으로 도망하였다. 이처럼 폴레보이의 공금 횡령이 가능했던 이유는 소비에트 러시아의 활동 경비 관리가 매우 허술하였기 때문이었다. 비록 폴레보이의 이후 행적이 좋지 못하지만 그의 소련유학생에 대한 조직적인 활동과 더불어 실질적인 도움에 대해서는 결코 평가절하 되어서는 안된다.⁹²⁾

한편 구추백이 『신보』 특파 기자 신분으로 파견될 당시, 북경마르크스학설연구회 및 그 후 북경공산주의소조의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⁹³⁾ 먼저 북경마르크스학설연구회와 북경공산주의소조를 주도했던 이대조와 구추백의 관계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대조와 구추백은 5·4 운동 중에 설립된 사회주의연구회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이미 서로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1920년 1월 3일에 이대조가 『성기평론』 제 31호에 「美利堅之宗教新村運動」 글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21일 구추백은 『신사회』 제 9기에 「讀‘美利堅之宗教新村運動’」를 발표하였다. 구추백은 이대조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미국의 신촌운동이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을 그들이 신봉한 이상이 비사회주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이 문장에서 구추백은 처음으로 명확하게 공산주의에 찬성하는 표현을 하였다.⁹⁴⁾ 이를 통해 구추백이 공산주의로 변모하는 데에 이대조의 영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북경마르크스학설연구회는 앞서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1920년 3월 이대조가 등중하 고군우 등과 여러 차례 준비와 토론을 거쳐 비밀리에 조직한 것이었다. 당시 연구회를 조직하는 데에 등중하와 고군우가 주된 역할을 하였는데 특히 등중하는 개인적으로 안면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원

92) 한 연구자는 폴레보이의 공금횡령 뒤 소비에트 러시아 국적 포기 선언은 아나·볼 분열에 대한 반항적인 행동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였다(조세현(2005), 앞의 글, 255~256쪽).

93) 자세한 내용은 周一評, 「瞿秋白 第一次赴俄原因的一些推測」, 『瞿秋白研究文叢』第2輯, 2008 참고.

94) 張靜如 外, 『李大釗生平史料編年』, 上海人民出版社, 1984, 95쪽.; 姚守中 外, 『瞿秋白年譜長編』, 江蘇人民出版社, 1993, 56쪽.

을 모집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회의 주된 회원은 5 · 4 운동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북경대 학생이었고, 기타 학교에서는 개별적으로 참가했다.

연구회 회원은 구추백을 비롯한 鄧中夏 高君宇 劉仁靜 羅章龍 朱務善 范鴻劼 何孟雄 黃日葵 李駿 등이 있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공산주의자였는데, 연구회를 대외적으로 공개한 후에는 회원들의 사상적 경향이 복잡해졌다고 한다. 북경마르크스학설연구회는 공산주의를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였기 때문에 드러난 활동이 없었고 조직상으로도 매우 허술하였다.⁹⁵⁾

1920년 8월 상해에서 공산주의소조가 조직된 이후 서기로 임명된 진독수는 이대조에게 편지를 보내 북경에서도 공산당을 조직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이대조는 張國燾 張申府 등과 함께 북경에서 본격적인 창당활동에 나서게 된다.⁹⁶⁾ 1920년 10월 이대조 장국도 장신부는 북경공산주의소조를 정식으로 조직하였다.⁹⁷⁾

그러나 장신부가 한 달 후에 프랑스 리용 대학의 초빙에 응해 교수로 부임하게 되자, 이대조는 당원을 확보하기 위해 黃凌霜 陳德榮 袁明熊 張伯根 華林 王竟林 등 6명의 아나키스트를 가입시켰다. 이후에 유인정과 나장룡도 북경공산주의소조에 가입하였다.⁹⁸⁾ 이 때 상해공산주의소조와 마찬가지로 북경공산주의소조에 참여한 초보적 공산주의자들과 아나키스트들의 기억 차이가 존재했다. 특히 아나키스트들은 북경공산주의소조 활동을 북경사회주의자동맹의 연장선상이라는 입장에서 가담하였다고 한다.⁹⁹⁾

95) 이찬원(2001), 앞의 글, 149~151쪽.

96) 장국도와 장신부 회고의 차이에 관해서는 임상범, 「中國共產黨 北京支部의 創立과 初期活動」, 『동양사학연구』 제34집, 1990, 125~128쪽 참고.

97) 상해공산주의소조와 마찬가지로 북경공산주의소조의 명칭 시기 인원에 대해 여러 가지 이견이 존재한다. 다양한 학설은 조훈, 「중국공산주의소조 연구사」, 『중국현대사연구』 제3집, 1997에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98) 이찬원(2001), 앞의 글, 145~146쪽.

99) 임상범(1990), 앞의 글, 130쪽.

비록 구추백은 북경공산주의소조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북경공산주의 소조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이대 조와의 관계와 더불어 구추백은 북경공산주의소조에 참여한 장국도와도 막역한 사이였기 때문이다.

구추백과 장국도는 5·4 운동 기간에 서로 알게 되었다. 그들은 각각 북경아문전수관 총 대표와 북경대학 학생으로서 시위에 참여하였다. 1919년 5월 6일 北京中等以上學校學生聯合會가 성립되었는데, 구추백이 이 조직의 평의부 의원을 맡았고 장국도는 강연부부장을 맡았다. 또한 이들은 북경마르크스학설연구회에도 함께 참여하였다.¹⁰⁰⁾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북경공산주의소조에 참여한 이대조나 장국도가 구추백에게 소조에 관한 사실을 알려주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구추백은 북경공산주의소조에 가입하지 않았을까? 북경공산주의소조의 성립 시기는 1920년 10월 무렵이다. 아마도 구추백이 소비에트 러시아로 떠나기 전후에 조직되었을 것인데, 그가 이미 북경공산주의소조가 조직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더라도 이미 소비에트 러시아로의 파견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그가 직접 소조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소비에트 러시아로 떠난 뒤에도 소조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 구추백은 소비에트 러시아로 가는 여정에서 유송화와 소비에트 러시아를 조사할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유송화에게 통신사무를 책임지게 하고 자신은 이론과 사실적인 측면에서 러시아공산당 공산주의 러시아문화를 연구하겠다고 했다.¹⁰¹⁾ 이것은 『신보』 기자로서의 임무와는 다른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구추백이 1921년 1월에 쓴 「中國工人的狀況和他門對俄國的期望」라는 글은 그가 러시아공산당에게 쓴 편지인데, 이 글에서 그는 이미 조직된 중국공산당 조직 활동을 언급했다.¹⁰²⁾ 이것은 구추백이 북경

100) 姚金果, 「瞿秋白與張國燾」, 『瞿秋白的歷史功績-瞿秋白英勇就義70周年紀念暨學術研討會論文集』, 2005, 277쪽.

101) 瞿秋白, 「餓鄉紀程」, 앞의 자료집(1985), 65쪽.

102) 『瞿秋白文集 政治理論編』第1卷, 人民文學出版社, 1987, 167~175쪽. 「中國工人的狀

공산주의소조에 관련된 활동 소식을 계속 접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이 글은 유송화와 이중무와 함께 쓴 것이 아니라 구추백 혼자서 쓴 글인데, 유송화와 이중무는 그 당시에는 공산당 조직과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다.¹⁰³⁾ 일반적으로 일개 기자의 신분으로서 소비에트정부나 신문사에는 편지를 쓸 수 있지만 러시아공산당에게는 편지를 쓸 수 없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구추백은 북경공산주의소조의 지지를 받고 소비에트 러시아로 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유송화는 모스크바로 간지 3개월이 지난 1921년 5월에 독일 베를린으로 파견되어 그곳에서 『시사신보』에 독일에 대한 많은 통신을 보냈다. 이중무의 경우는 구추백의 「赤都心史」라는 글에서 보면 촬영에만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¹⁰⁴⁾ 결국 소비에트 러시아에 대한 실상 보도와 더불어 러시아공산당과 공작하는 중요한 임무는 구추백의 손에 달려 있었다.

1920년 10월 16일 구추백 유송화 이중무는 지인들의 배웅을 받으며 소비에트 러시아로 떠났다. 당시 중국인이 소비에트 러시아 국경으로 진입하는 데에는 많은 장애가 있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여정이었다.

그래서 구추백의 경우 그가 소비에트 러시아로 떠나려던 당시에 그의 사촌형 瞿純白은 러시아를 ‘絶地’라고 하면서 구추백이 마음을 돌리도록 설득했다. 그러나 구추백은 오히려 형에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하며 그가 스스로 절지에 뛰어들고 죽기 위해 소비에트 러시아로 가는 까닭은 그가 중국의 현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러시아혁명에서 찾길 원했기 때문이었다고 하였다.¹⁰⁵⁾

북경에서 소비에트 러시아로 떠나는 노선은 육로 교통을 통해 가는 것

況和他門對俄國的期望」은 1921년 2월 27일 출판된 『共產國際遠東書記處公報』第 1期 ‘遠東來信’란에 실렸었다.

103) 이중무는 1922년 즈음하여 소련공산당(聯共(布))에 입당하였다.(「蕭勁光回憶旅俄支部前後的一些情況」, 앞의 자료집(1989), 39쪽.)

104) 藍鴻文(1989), 앞의 글, 45~47쪽.

105) 瞿秋白, 「餓鄉紀程」, 앞의 자료집(1985), 8쪽, 17쪽.

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하나는 북경에서 서북방향으로 카흐타(현재 부랴트공화국의 한 도시)에서 이르쿠츠크로 가는 방법이었다. 다른 하나는 북경에서 동북방향으로 만주리를 거쳐 원동공화국 수도인 치타에서 이르쿠츠크로 가는 방법이었다.

구추백 일행은 후자의 노선을 택해 소비에트 러시아로 떠났다.¹⁰⁶⁾ 구추백 일행은 10월 18일 北京-奉天 열차를 타고 천진을 떠나 긴 여정을 시작하였다. 당시 그는 유린 사절단 비서의 소개로 곧 부임할 중화민국 북경정부 주모스크바 총영사 陳廣平 일행과 동행했다. 주모스크바 총영사의 부임은 상술한 원동공화국과 북경정부 공작의 결과물이었다. 당시 영사 일행은 총영사와 부영사 劉雯 수습영사 鄭炎 3명이었다. 총영사의 부임 목적은 러시아 경내 교포의 안전을 돌보는 것으로 화교를 귀국 송환시키는 것이었다.

구추백 일행은 총영사 일행과 함께 동행 한다면 하얼빈에서 전용열차를 타고 곧바로 치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유린 비서의 말을 전해 듣고 여정에 올랐다. 이들은 19일 봉천(지금의 沈陽市)에 도착하여 南滿열차로 갈아타고 張春으로 향했다. 당시 봉천은 일본이 규제하고 있던 지역으로 남만열차의 직원은 모두 일본인이었다. 그래서 구추백은 이곳에 도착했을 때 마치 일본 국경 내에 온 것 같았다고 회고하였다.

구추백 일행이 장춘에 도착해서 다시 중동철도로 환승하여 하얼빈에 도착한 것이 10월 20일 저녁 8시 무렵이었다. 중동철도는 형식상 카라한 선언으로 인해 중국의 관리로 회수되었지만 열차 직원은 여전히 대다수가 러시아인이었다. 그러나 중동철도의 수비를 맡은 것은 일본경찰이었기 때문에 도로주변에서 일본경찰과 중국경찰은 잦은 충돌이 있었다.

하얼빈에 도착한 후에 구추백 일행은 세묘노프(謝苗諾夫) 백군 부대가 만주리와 치타 사이에 주둔하여 홍군과 격렬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얼빈을 떠나 북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처음에 그들은

106) 구추백 일행의 소비에트 러시아로 떠나는 여정은 瞿秋白, 「餓鄉紀程」, 『瞿秋白文集文學編』第1卷, 人民文學出版社, 1985와 陳鐵健, 『瞿秋白傳』, 紅旗出版社, 2009, 74~80 쪽에 근거하여 서술하였다.

상황이 급박하여 북경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논의 끝에 시국이 안정되길 기다려 전진하기로 했다.

그래서 구추백 일행은 15여일 하얼빈에 체류하게 되었다. 하얼빈은 본래 러시아의 세력범위였기 때문에 러시아 건축물이 많았다. 그러나 10월 혁명 이후 카라한 선언으로 중동철도를 중국에 반환하면서 구러시아 세력은 약화되었고, 대신에 일본인들이 하얼빈으로 대거 이동해왔다. 일본은 중동철도 특권을 얻으려고 기도하였고 하얼빈을 경영하면서 만몽(滿蒙)에 대한 권리를 확대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10월 혁명 이후 시베리아로 출병한 전략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하얼빈 시장은 이미 일본인이 장악하여 중국 상품은 일본 상품과 경쟁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이미 하얼빈 시정에도 일본인이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

한편 하얼빈에는 러시아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특히 소비에트 러시아 볼셰비키당원들이 이곳에서 여러 조직을 통해 활동하고 있었는데, 구추백은 하얼빈에 체류하는 동안에 중동로 노동조합 연합회에 참석하는 등 소비에트 러시아 혁명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12월 초가 되어 만주리에서 백비군단이 궤멸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총영사 진광평의 전용열차를 타고 구추백 일행은 12월 7일 하얼빈을 떠나 북상하였다. 이때 총영사는 식비 숙박비 여행경비 명분으로 이들에게 부담한 비용을 청구하기도 하였다. 전용열차는 13일 만주리에 도착했는데 이곳은 중국과 러시아 인접지역으로 여러 차례 전쟁을 겪으면서 황폐해져 있었다. 구추백은 북경정부가 파견한 비공식 대표단인 張斯麟이 모스크바에서 귀국하는 도중에 만주리에 도착하여 그를 만났다. 또한 장사린과 함께 귀국한 러시아 유학생 劉紹周와 劉澤榮을 만났다.

유소주는 코민테른의 명을 받고 중국에 파견되었는데, 레닌이 코민테른 제 2차 대회에서 기왕에 조직된 러시아 거주 중국인 조직의 지도부를 중국으로 이주시켜 중국혁명을 지도하도록 지시 내렸기 때문이었다. 그는 일찍부터 中華旅俄聯合會 회장으로서 레닌과 교분이 있었던 인물로 러시아공산당 중앙뿐 아니라 코민테른 지도부로부터도 높은 신임을 받고 있었

다.¹⁰⁷⁾ 구추백은 유소주를 통해서 소비에트 러시아의 내전기간 동안의 사회경제적 소식을 접했다.

한편 소비에트 러시아 정부는 진광평이 모스크바 총영사로 부임한다는 정식 통고를 받지 못했고 원동공화국에서도 이 사실을 몰랐다. 장사린이 모스크바에서 북경정부의 철회명령을 받고 소비에트 정부에 다른 총영사가 모스크바로 부임한다는 보고를 하여 이 전문이 쿠룬대사관(지금의 외몽고 수도 울란바토르)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전해지지 않은 것이었다. 그래서 총영사 일행과 구추백 일행은 하는 수 없이 만주리에서 치타의 통지를 기다려야했다.

당시 원동공화국 교통총장 사도프를 만나 만주리에서 일을 처리한 다음 16일에 비로소 중국 러시아 국경선을 통과하여 소비에트 러시아로 들어갔고 18일 치타에 도착하였다. 이때 구추백은 북경아문전수관의 동급생인 주치타 부영사 葆毅를 만났는데, 그는 러시아혁명 이후의 소비에트 러시아 상황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점을 이야기 하며 구추백에게 모스크바로 가는 것을 만류하기도 하였다. 구추백은 치타에 체류하면서 원동공화국 사회 전반적인 조사와 취재를 하였고 원동공화국 정권 및 공산주의에 대해 연구 하였다. 또한 구추백과 유송화는 원동공화국 임시정부 총리 겸 외교총장 크라스노셰코프를 통해 현지 상황에 대해 들었다. 치타공산당위원회는 구추백의 취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간행물인 『俄羅斯共產主義黨綱』, 『共產國際』 잡지, 『社會主義史』 등을 보내주었다.

1921년 1월 25일 구추백 일행은 모스크바에 도착하였고, 소비에트 러시아 외교인민위원회 동방사사장 楊松을 만났다. 또한 1921년 9월 구추백은 모스크바 동방대학에서 중국반 통역 겸 조교를 맡았다. 당시 동방대학 중국반에는 제 1세대 유학생들이 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반에서 구추백은 러시아어와 유물변증법, 정치경제학 과목을 강의했다. 아울러 정치이론과목의 통역을 맡았다.¹⁰⁸⁾ 당시 중국 유학생들이 대체적으로 6개월가

107) 서상문, 앞의 글(2008), 184쪽.

108) 陳鐵健(2009), 앞의 글, 98~99쪽.

랑 중국에서 러시아어를 공부하고 왔음으로 불구하고 러시아어 수준이 비교적 낮아서 구추백은 이들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시기 이후부터 구추백의 혁명 활동은 소비에트 러시아 및 코민테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고, 중국의 소련유학생에 관한 일에도 깊숙이 개입하였다. 구추백은 동방대학 교원직을 맡았을 때부터 소련유학생의 교육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관심은 1920년대 말까지 계속되어 그가 중공 주코민테른 단장으로 또 다시 모스크바에 파견되었을 때에 중산 노동자 공산주의대학¹⁰⁹⁾의 교육방침, 학교관리, 교재 및 수업방법 등에서 많은 문제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관료주의의 태도가 성행하였고, 불세비키식 간부를 육성하는 것이 중국공산당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그는 여러 차례 중공중앙, 소련공산당 중앙과 코민테른에 편지를 보냈다. 그는 편지에서 학교공작 중 존재하는 각종 문제에 대해 매섭게 비평하였고, 아울러 구체적인 개선조치를 제시하였다.¹¹⁰⁾

또한 구추백은 소련유학생들이 스탈린과 트로츠키의 분규에 휘말려 파벌투쟁을 벌일 때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는 王明을 대표로 하는 소수파가 학교의 관료주의를 옹호하는 것에 대해 중공대표단의 책임자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학생들의 파벌분쟁에 뛰어들었다. 이 분쟁이 가장 격렬하게 나타난 사건인 ‘江浙同鄉會事件¹¹¹⁾’으로 인해 구추백은 결국 중공 주코민테른 단장의 직무에서 해임 당하였다.

구추백은 머지않아 개최된 中共六屆四中全會에서 그가 소련유학생들의 파벌분규를 영도했다는 죄가 성립되어 귀국을 강요받았다. 비록 그의 소

109) 국공합작의 결렬 이후에 동방대학이 중산대학으로 합병되어 학교 명칭을 중산 노동자 공산주의대학으로 개명하였다.

110) 李偉民, 「瞿秋白對中國留蘇學生教育中存在問題的質疑及其影響」, 『黨史文苑』, 2009, 24쪽.

111) ‘강절동향회사건’에 대해서는 楊奎松, 「“江浙同鄉會”事件始末」, 『近代史研究』, 1994를 참고. 이 사건에는 구추백뿐 만아니라 중공 가장 이른 발기인인 俞秀松, 항전기間に 팔로군 참모장을 지낸 左權, 신중국에 저명한 경제학자 孫冶方등을 비롯하여 장개석의 아들인 蔣經國도 관련되어 있었다.

련유학생에 관련된 일을 위한 노력이 좋지 못한 결과를 빚어냈지만 그 과정에서의 성과는 등한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1921년 모스크바 동방대학교원직을 시작으로 소련유학생과 인연을 맺어온 구추백이 누구보다도 소련유학생의 고충을 잘 알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북경지역에서 중국공산당 창립시기 가장 먼저 소비에트 러시아로 파견된 이들은 『신보』 『시사신보』 특파원이었던 구추백 유송화 이증무 세 사람이었다. 이들이 소비에트 러시아로 파견될 때에는 폴레보이를 비롯한 원동공화국 유린사절단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세 명의 기자 중에서 구추백은 특히 주목할 만한 데, 그는 소비에트 러시아로 파견될 당시 북경공산주의소조와 깊은 연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소비에트 러시아 현지 상황을 취재하는 동시에 러시아공산당에게 북경의 공산당 활동 소식을 전달하였다. 아울러 그는 동방대학에서 최초의 중국인 교원이 되어 제 1세대 소련유학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그가 비록 유학생의 신분으로 소비에트 러시아에 파견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활동은 소련유학생을 대표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2. 北京 無政府黨互助團에서 파견된 소련유학생

북경에서는 『신보』 기자단과 다르게 또 다른 소련유학생 무리가 형성되었다. 바로 무정부당호조단에서 파견된 유학생이 그들인데 이들은 모두 아나키스트들이었다. 아나키스트들이 소비에트 러시아로 가려고 한 이유는 초보적인 공산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혁명 이후 형성된 현지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 때문이었다. 이와 더불어 아나키스트들은 코민테른의 원조를 요청하기 위해 소비에트 러시아로 떠났다. 무정부당호조단에서의 소련유학생에 관한 내용은 關謙이라는 첩보원의 보고문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1921년 2월에서 7월까지 북양군벌 京畿威戍 총사령부의 첩보원이었던

관점은 북경사회주의청년단과 무정부당호조단에 동지로 가장하여 잠입하였다. 이 시기는 공산주의자들과 아나키스트들이 이미 아나 · 볼 논쟁으로 인해 분열되어 있었다.¹¹²⁾

아나 · 볼 분열 이후 북경공산주의소조는 1920년 11월 말에 중국공산당 북경지부로 바뀌었고 곧이어 북경사회주의청년단이 조직되었다. 서기는 북경대학 학생회 책임자인 고군우가 추대되었다. 단원은 처음에 북경대학 학생으로 한정되었으나 점차 북경지역 각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도 참여할 수 있었다. 북경사회주의청년단 단원은 高君宇 鄧中夏 羅章龍 劉仁靜 何盟雄 繆伯英 李實 羅漢 朱務善 黃紹谷 黃日葵 李駿 楊人杞 范鴻劼 王有德 高崇煥 吳汝銘 周達文 劉維漢 柯慶施 鄭振鐸 등이 있었다.¹¹³⁾ 이들 대부분은 1920년대 초중반에 동방대학과 중산대학에서 유학을 하였다.

아나키스트들의 경우에는 무정부당호조단이란 모임을 중심으로 모였다. 무정부당호조단은 무정부당 호조단 혹은 무정부공산주의당과 같은 단체로 추정되고, 광주의 호조단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청년 아나키스트의 조직체이다. 호조단은 1919년에 黃凌霜 朱謙之 등이 북경대학을 중심으로 만든 것이었는데, 아마도 이 호조단이 신문학회 등과 연합하여 확대된 것이 무정부당호조단이고 다수가 광동인이었다고 한다.¹¹⁴⁾

관점의 보고는 1921년 2월 12일부터 시작되어 8차례에 걸쳐서 남아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소비에트 러시아로 파견된 유학생과 관련된 언급들이다. 1921년 2월 9일 관점은 무정부당호조단에 입단했는데 세 차례에 걸쳐 취조를 받는 등 매우 엄격했다고 하였다. 그는 외부에서 새롭게 가입한 첫 번째 단원이었다.¹¹⁵⁾

무정부당호조단은 2월 12일 토요일 오후 북경대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112) 아나 · 볼 논쟁과 분열에 대해서는 조세현, 「중국 5·4운동 시기 아나키즘-볼셰비즘 논쟁」, 『역사비평』 52호, 2000.; 조세현, 「보이틴스키의 중국 방문과 ‘社會主義者同盟’-중국공산당 창립 시기 아나키즘 · 볼셰비즘 합작과 분열-」, 『중국사연구』 제36집, 2005.

113) 이찬원(2001), 앞의 글, 152쪽.

114) 조세현(2005), 앞의 글, 245쪽.

115) 「關謙關於北京無政府黨互助團集會活動及籌資赴俄調查等情致王懷慶呈(1921年2月)」, 『無政府主義思想資料選』(下), 北京大學出版社, 1984, 1050쪽.

이때 폴레보이도 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관점은 폴레보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상히 보고하였다.¹¹⁶⁾

2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 (무정부당호조단의) 3-5인이 북경대에서 작은 모임을 가졌는데, 이 모임은 북경대학 교수 러시아인 폴레보이가 한 러시아 농민 당원을 소개하기 위해서였다. 아울러 동지들과 치타 모스크바로 동행하여 러시아 현지 상황과 소비에트정부의 이로움과 폐단을 조사토록 하고 모스크바대학에 입학하도록 하여 실제 상황을 조사하는 데에 더욱 편리할 것이라고 이 당에 보고하였다……. 폴레보이는 소비에트 정부의 요원이고, 중국에서 공산주의청년단에 참가한 인물이자, 북경대학 교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천진에 거주하며, 매주 금요일 토요일에 북경에 와서 수업을 한다. 임시로 灯市口 12호에 거주하며 왕래하는데, 행적은 비밀이다.

관점은 무정부당호조단의 회의에서 폴레보이가 한 러시아 농민당원을 소개했고, 모스크바동방대학에 중국 학생을 유학 보내는 임무를 맡고 있는 사실을 보고했다. 이와 더불어 폴레보이의 신상에 대해 소상히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폴레보이가 소련유학생 형성뿐 아니라 무정부당호조단과 사회주의청년단에서 소비에트 러시아 정부와의 연락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소비에트 러시아로 파견되는 사람은 사천지역의 肖華清 劉仲容 및 북경지역 劉稀 孟知眠이었다.¹¹⁷⁾ 사천지역의 두 청년은 사천무정부주의 단체인 適社에서 파견된 인물들이었다. 적사는 사천지역에 설립된 비밀단체로 陳小我(慕勤)가 주관하였다. 1920년에서 1921년 사이에 사천지역에서

116) 「關謙關於北京無政府黨互助團集會活動及籌資赴俄調查等情致王懷慶呈(1921年2月)」, 앞의 자료집(1984), 1051쪽.

117) 「關謙關於北京無政府黨互助團集會活動及籌資赴俄調查等情致王懷慶呈(1921年2月)」, 앞의 자료집(1984), 1051쪽. 2월 19일 보고에서는 孟知眠을 孟某로 표기하고 있지만 이후의 보고에서 그의 이름을 명확히 표기하고 있다.

소비에트 러시아로 간 청년들의 대부분은 무정부주의단체와 관련이 깊은데 그 중에서 주축작용을 한 단체가 바로 적사이다. 적사는 두 청년을 북경에 있는 무정부당호조단으로 파견할 때 경비를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에트 정부와 연계하여 자신들의 조직에 대한 국제적인 원조를 요청하는 임무를 맡겼다. 소화청과 유중용은 사천지역을 떠나 북경으로 와서 북경사회주의청년단에 가입하였고 이와 동시에 무정부당호조단에서 활동하였다.¹¹⁸⁾

아울러 비슷한 시기에 적사는 상해에도 일부 청년들을 파견해 상해외국어학사에 입학하여 유학준비를 하도록 하였다. 그들은 바로 廖劃平 秦慧僧(抱朴) 杜小馬 徐敦讓이다. 이 네 사람은 본래 상해외국어학사를 통해서 소비에트 러시아로 가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자 무정부주의 단체 중 하나인 신화학교의 스테파니의 알선을 거쳐 떠났다.

소화청 유중용을 비롯한 네 사람의 경비는 북경에서 치타까지 개인 경비 150元을 지출하고, 치타에서 모스크바까지 소비에트 러시아정부가 책임지기로 했다. 그러나 사천지역의 두 사람은 이미 해당 지역(적사)에서 여행경비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북경지역의 두 사람은 아직 경비를 받지 못하여 소비에트 러시아로 출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2월 20일 오후 소비에트 러시아로 가는 이들의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진덕영의 숙소에서 회의가 열렸다. 우선 유중용이 모스크바로 가는 취지를 설명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¹¹⁹⁾

우리는 장점을 발전시키고 단점을 없애기 위하여 전 러시아의 경과와 현재 상황을 조사하도록 해야 하며, 본당이 국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러시아와 연락해야 한다. 지금 러시아인 폴레보이가 친구 동반자를 소개하여 더욱 여행을 위한 좋은 기회를 얻었다. 나와 화청 유희 맹지면 네 사람은 당무를 위해 희생하기로 서약하고 감히 두려워

118) 楊世元, 「試析『四川省重慶共產主義組織的報告』」, 『四川黨史』, 1996, 4~6쪽.

119) 「關謙關於北京無政府黨互助團集會活動及籌資赴俄調查等情致王懷慶呈(1921年2月)」, 앞의 자료집(1984), 1052쪽.

하지 않고 기여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다. 나중에는 그때그때 보고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유중용은 소비에트 러시아로 가는 취지를 러시아혁명 이후 경과 및 실제 상황을 조사하고 아울러 소비에트 정부와 연락해 국제적인 원조를 받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유중용의 발언을 통해 ана키스트들이 소비에트 러시아로 가려고 했던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다. 또한 폴레보이가 모스크바 여정을 함께 할 친구를 소개해주어 네 사람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었다.

여기서 여정을 함께 할 친구에 대해서는 자료 부족으로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추측컨대 폴레보이가 소개해준 인물이 이바노프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바노프는 1921년에 상해에서 출발한 소경광 화림 등의 무리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마중 나와 그들의 입경 수속을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바노프는 무정부당호조단의 청년들이 소비에트 러시아로 파견되는 여정에 도움을 주었고, 이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상해에서 파견된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소비에트 러시아로 떠나는 데에 가장 큰 문제는 유희 맹지면의 경비 부족이었다. 대략 북경에서 치타까지의 여비는 300원 정도 예상되었다. 그래서 무정부당호조단에서는 이들을 위해 단원들의 기부를 받아 원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고등사범학교 측에서 徐名鴻이 대표로 총 55원을, 폴레보이는 陳廷璠을 통해 18원을 기부하였다. 陳友琴 黃慶 陳德榮 章鐵民은 각 10원, 陳延璠 劉果航은 각 5원, 李建朝는 20원, 黃凌霜은 7원, 杜某는 5원, 林某는 6원, 王伯時는 8원, 관점 또한 30원을 기부하였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천지역의 소화청 유중용이 함께 보조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황릉상이 상해지역에서 소비에트 러시아로 떠나는 이들에 대한 보고를 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¹²⁰⁾

상해의 萍水군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 내용은 이곳 동지 3명이 이미 먼저 러시아로 떠났고, 두 번째 무리 네 사람이 4월 사이에 출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기서 萍水는 상해지역 무정부공산주의동지사¹²¹⁾의 외곽조직이었던 신화학교에서 공부한 인물이다.¹²²⁾ 그렇다면 편지 내용에서 나타나는 ‘이곳’은 신화학교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미 떠난 3명에 대해서는 자료의 부족으로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4월 출발할 예정인 네 사람은 요희평 진혜승 두소마 서돈양이다.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 보아 당시 소비에트 러시아 유학생 형성은 사천 천진 북경 상해 등 각 지역들에서 독자적인 형성이 아니라 서로 간 정보 교류를 통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상해외국어학사에서 형성된 소련유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3월 16일 오후에 북경대에서 사회주의청년단 회의가 열렸는데 관겸을 비롯한 무정부당호조단의 진정번 진덕영 왕백시가 참석하였다. 이날 관겸이 무정부당호조단원 세 사람의 소개로 청년단에 가입하였다. 당시 북경 지역에서는 아나 볼 분열 이후에도 이대조의 노력으로 공산주의자와 아나키스트 사이에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나키스트들은 북경공산주의소조를 탈퇴한 후에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동시에 사회주의청년단 활동에도 협조하고 있었다.¹²³⁾

120) 「關謙關於北京無政府黨互助團集會活動及籌資赴俄調查等情致王懷慶呈(1921年2月)」, 앞의 자료집(1984), 1052쪽.

121) 무정부공산주의동지사는 일찍이 지나무정부공산당 성립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그러나 1919년 여름 각 지역 무정부주의단체들이 지나무정부공산당을 성립하려고 연합대회를 소집했지만 실패했고 이후에도 이 당은 성립되지 않았다(이단양(2002 第1期), 앞의 글, 63쪽, 각주4).

122) 「[附]俄游通信」, 앞의 자료집(1989), 72쪽. 요희평 편지에서는 萍水와 太朴을 비롯한 아나키스트들이 조직한 단체가 ‘安那其同志社’라고 했는데, 이 조직은 신화학교가 암호 활동을 했던 무정부공산주의동지사와 같은 조직으로 판단된다.

123) 조세현(2005). 앞의 글, 244~245쪽.

한편 청년 코민테른 당원 그린(Green)이 청년단 회의에 참석하려고 했으나 천진으로 가야할 일이 생겨 편지를 보내왔는데, 4월 25일 열릴 예정인 세계 청년 코민테른대회 대표를 선출하여 파견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선출된 대표는 그린과 함께 동행하기로 했는데, 경비는 그가 대신 지불한다고 했다. 이에 투표를 실시하여 何孟雄을 대표로 선출하였다.¹²⁴⁾

그린은 북경지역뿐 아니라 상해사회주의청년단에서도 대회에 파견할 대표를 선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래서 상해지역 대표로는 유수송이 추천되었다. 하맹웅과 유수송은 이전에 北京工讀互助團에서 함께 활동한 사이였다. 이들은 본래 함께 떠날 예정이었으나 유수송이 경비문제로 일정이 지연되면서 하맹웅이 먼저 모스크바로 떠났다.¹²⁵⁾

관점은 무정부당호조단과 북경사회주의청년단을 부지런히 염탐하였다. 3월 30일 북경사회주의청년단은 북경대에서 제 4차 대회를 열었는데 청년들을 유학 보내기 위한 경비조달 및 예산집행을 위해 집행위원회를 설치한 사실을 알아냈다. 또한 3월 29일 상해 아나키스트 張秀書 鄒進 두 사람이 상해에서 소비에트 러시아로 가기 위해 북경으로 왔고, 일주일 내에 다른 두 사람이 북경으로 올 것이라는 사실과 장수서와 추진은 4월 1일 밤에 북경에서 출발할 예정임을 보고하였다.¹²⁶⁾ 이들은 상해에서 북경으로 북상하여 북경사회주의청년단과 무정부당호조단에서 파견되는 청년들과 함께 육로를 통해 소비에트 러시아로 떠났다.

하맹웅을 비롯한 천진 북경 상해의 13명 청년들은 북경-봉천 기차를 타고 張作霖이 규제하는 지역인 봉천을 지나 하얼빈에 도착하여 다시 중동철도로 환승하여 만주리를 거친 다음 소비에트 국경 치타로 들어가는 경로를 택했다. 당시 육로로 가는 길은 위험한 요소가 많았다. 특히 1920년대는 군벌들이 횡횡하던 시기로 군벌정부는 러시아혁명을 적대시하였고

124) 「關謙關於北京無政府黨互助團集會活動及籌資赴俄調查等情致王懷慶呈(1921年2月)」, 앞의 자료집(1984), 1055쪽.

125) 俞秀松, 「1921年4月6日給父母親和家中諸人的信」, 『俞秀松評傳』, 中共黨史出版社, 1999, 186쪽.

126) 「關謙關於北京社會主義青年團與無政府黨互助團活動情形致王懷慶呈(1921年3-4月)」, 『中國無政府主義和中國社會黨』, 江蘇人民出版社, 1981, 87~88쪽.

소비에트 러시아로 가는 청년들을 저지하고 감옥에 투옥시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운이 좋으면 손쉽게 국경을 통과했지만 운이 좋지 않으면 군벌에 의해 체포되기도 했다. 바로 하맹웅 등 13명의 청년들은 만주리에서 장작림부대에 의해 체포되어 흑룡강성 육군 감옥에 수감되었다.

이 사실은 4월 24일 오후 북경대에서 북경사회주의청년단 제 5차 대회가 소집되어 하맹웅의 편지가 소개되면서 사회주의청년단원들에게 알려졌다. 그들이 체포된 지 이미 10여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하맹웅은 청년단에게 소비에트 러시아를 사찰하거나 교육하는 것을 승인받고 學務局이나 本校(?)에 전보를 보내는 등의 구명 활동을 요청하였다. 하맹웅은 체포되었지만 북경사회주의청년단 증서 및 청년코민테른 공산단서는 그가 솜옷 속에 넣고 꿰매두어 수색당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행히도 체포를 면한 그린 이 두 문서를 가지고 소비에트 러시아로 떠났다고 하였다.

북경사회주의 청년단원들은 구명활동을 위한 모금을 했는데 총 400원을 기부 받아야 했다. 그래서 이대조가 10원, 장국도 유인정이 각 5원, 고군우(고상덕) 관겸이 각 4원, 나머지가 1-3원을 기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이 턱없이 부족하여 북경에 없는 10여인 단원을 제외하고 매 단원에게 2원씩 부담시켰다. 그래도 모금액이 부족하자 이대조는 북경의 아나키스트들에게도 일부 부담할 것을 제의했다. 왜냐하면 아나키스트인 유중용 유희 맹지면 등도 함께 체포되었기 때문이었다.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이대조가 처리하기로 했다.

기부 받은 모금액을 가지고 이대조는 장작림 참모장과의 인맥을 동원해 13명 청년 석방시키려고 노력했다. 구명활동 노력이 헛되지 않아 5월 하맹웅 등 13명 청년이 석방되었다.¹²⁷⁾ 그러나 소비에트 러시아로 가는 목적은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 유중용은 사천으로 돌아갔고, 소화청은 상해로 돌아와 해로를 통해 다시 소비에트 러시아로 가고자 하였다.¹²⁸⁾ 또한 무정부당호조단은 陳延璠을 소비에트 러시아로 파견하여 그들의 목

127) 「關謙關於北京社會主義青年團與無政府黨互助團活動情形致王懷慶呈(1921年3-4月)」, 앞의 자료집(1981), 90쪽.

128) 楊世元(1996), 앞의 글, 5쪽.

적을 실현하고자 했다.¹²⁹⁾

요컨대 북경지역에서는 『신보』 기자단뿐 아니라 ана키스트들이 무정부당호조단이라는 단체를 통해 북경사회주의청년단과 연계하여 소비에트 러시아로 떠나고자 했다. ана키스트들이 소비에트 러시아 유학길에 오르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인물은 바로 폴레보이였다. 그는 직접 무정부당호조단과 북경사회주의청년단에 참여하여 소련유학생의 여정을 도와 줄 인물을 소개하거나 모금활동에 도움을 주었다. 폴레보이의 도움을 받은 ана키스트들이 소비에트 러시아로 떠나려 했던 주된 목적은 혁명 이후의 현지에 대한 호기심과 소비에트 정부 및 코민테른의 원조 요청을 위해서였다. 아울러 중국에 가장 영향을 미친 ана키즘 사상이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이었는데, 크로포트킨의 고향이 러시아였다는 이유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소비에트 러시아로 유학을 떠나려고 했던 ана키스트들은 상해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는데, 그들은 상해외국어학사나 신화학교를 통해 떠나고자 했다.

그러나 ана키스트들이 실제로 소비에트 러시아에 가서 보고 겪은 것은 그들이 상상했던 크로포트킨의 ана르코-코뮤니즘 모델이 아니라 레닌의 영도 하에 마르크스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건립된 무산계급 전정 국가였다. 이로 인해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크게 실망하고 돌아온 ана키스트들은 레닌의 무산계급전정제도를 비판하였고, 크로포트킨의 이상모델에 따라서 중국 사회문제를 개조하는 노력을 진행하였다.¹³⁰⁾ 대표적인 인물이 진혜승(포박)과 화림이었다.¹³¹⁾

3. 上海外國語學社와 新華學校에서 파견된 소련유학생

북경과 마찬가지로 상해에서도 러시아 밀사들의 활동과 중국 혁명가들

129) 方慶秋, 「五四運動前後的中國無政府主義派」, 『歷史檔案』, 1981, 109쪽.

130) 方慶秋(1981), 앞의 글, 109쪽.

131) 抱朴, 「赤露旅行記」, 『中國アナキズム運動の回想』, 總和社, 1992, 223~247쪽.; 華林, 「漁陽里六號とロシア留學について」, 앞의 자료집(1992), 248~251쪽.

의 노력의 산물로 상해공산주의소조와 상해사회주의청년단이 조직되었다. 아울러 1920년 9월 상해공산주의소조는 중국혁명을 위한 간부 양성의 필요성과 진보적인 청년들을 소비에트 러시아로 유학 보내기 위해 상해외국어학사를 설립하였다.

외국어학사가 설립되기 전, 신문화운동과 5·4 운동 시기 노동운동의 중심이었던 상해는 수륙교통발달이라는 우월한 지리적 조건으로 각지 진보적인 청년들과 혁명가들을 서로 연결해 주었다. 상해의 혁명가들은 1919년 6월 사이 『星期評論』과 『民國日報』의 『覺悟』 부간을 출간하였고, 1920년 초에는 진독수의 『신청년』이 상해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상해는 전국적으로 사회주의를 선전하는 매우 영향력이 큰 도시가 되었다.

이때 5·4 운동 이후 떠들썩한 학생운동 때문에 학교를 떠났거나 가정이 독단하는 혼인에 불만을 품고 도망 나온 청년들이¹³²⁾ 러시아혁명의 길을 중국의 출로라고 굳게 믿고서¹³³⁾ 사회주의를 선전하는 상해로 왔다. 그들은 이곳에서 혁명가들의 지도를 받기를 원했다. 이달은 이에 대해 “1920년 여름 내지에서 많은 청년들이 가정과 학교를 떠나 상해로 와서 『신청년』 사의 진독수와 『민국일보』의 『각오』 편집자 소력자를 찾았다.”고 회고하였다.¹³⁴⁾

한편 급진적인 청년들 사이에서 한때 유행했던 留法勤工儉學運動¹³⁵⁾이 지나가고 신생 러시아가 프랑스를 대신하여 주목을 받았다. 당시 유법근

132) 「陳望道談社會主義青年團早期的情況(1957年3月4日)」, 앞의 자료집(1989), 24쪽.

133) 蕭勁光, 「憶早期赴蘇學習時的少奇同志」, 앞의 자료집(1989), 41쪽.

134) 邱作健 俞樂濱(1989), 「外國語學社」, 앞의 자료집, 5~6쪽.

135) 유법근공검학운동은 신해혁명 전 프랑스에서 유학했던 李石曾을 비롯하여 吳稚暉 吳玉章 張繼 등이 오랜 외국기간 동안 사회를 개조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풍조와 세계문명을 국내에 수입하기 위해 서양을 유학해야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추진한 운동이다. 그들은 막 성립한 공화국을 신사회 신국민으로 조성하기 위해 民氣 民智를 선진국인 서구에서 배워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서구의 학비와 숙비가 비싸기 때문에 苦學을 통해 유학을 하는 풍조를 만들고자 民國 원년(1911년)에 이석중 오치회 등을 중심으로 유법검학회를 발기하고 북경에 예비학교를 개설하였다.(김정화, 「채원배의 이상주의 실천-유법근공검학(留法勤工儉學)운동의 교육구국적 측면」, 『충북사학』 10, 1998, 166쪽.)

공검학운동은 청년들에게 대단한 열풍을 불러일으켰지만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현지에서의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병행한 고된 생활로 인해 그 열풍은 퇴조되고 있었다.¹³⁶⁾ 유법근공검학운동의 이상이 좌절되자 많은 청년들은 점점 러시아 혁명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상해외국어학사에 입학하여 러시아어를 공부하고 유학가길 희망하였다.

상해외국어학사를 설립한 주체는 보이틴스키와 양명재를 비롯한 상해공산주의소조에 참여했던 중국혁명가들이었다. 교장은 양명재가 책임졌으며, 상해사회주의청년단 서기 유수송이 외국어학사의 비서를 맡아 행정사무를 관리하는 동시에 러시아어 공부를 겸했다. 당시 상해공산주의소조와 사회주의청년단의 관계는 매우 밀접했는데, 상해사회주의청년단 단원 대다수가 상해공산주의소조 구성원이었고, 이들이 외국어학사에 참여하였다.

상해외국어학사의 소재지는 霞飛路 新漁陽里 六號였다. 이곳은 원래 戴季陶의 거처였는데 대계도가 이사 간 후에는 상해공산주의소조의 활동장소가 되었다. 동시에 상해사회주의청년단 기관 소재지이기도 했다. 또한 양명재가 책임지고 상해혁명국의 선전임무를 수행한 상해화아통신사 역시 이곳에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외국어학사에서의 활동을 상해사회주의청년단과 상해공산주의소조의 활동으로 회고하였다. 상해외국어학사의 일부 학생은 화아통신사에서 노동자 간행물 『勞動界』의 접수 발송 필사 교정 및 도서관리 등의 공작을 도왔다.¹³⁷⁾ 또한 신어양리 육호는 『신청년』 편집부 사무실인 진독수의 거처와도 이웃하여 서로 왕래하기 편리하였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상해외국어학사의 설립 목적은 각지에서 상해로 온 청년들을 안정적인 학습 환경에서 혁명 이론지식과 외국어(주로 러시아어)를 교육시키고, 직접적으로 당과 단의 지도하에 실제 혁명 공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청년들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러시아혁명의 발상지인 소비에트 러시아로 파견하여 체계적인 마르크스주의 학설을 학습하게 하고

136) 김정화(1998), 앞의 글, 178~182쪽.

137) 「魏以新談社會主義青年團成立時的情況(1980年6月)」, 앞의 자료집(1989), 55쪽.

중국혁명을 위한 간부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¹³⁸⁾ 이와 동시에 상해외국어학사 설립의 또 다른 목적은 상해공산주의소조의 활동에 대한 엄호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외국어학사’라는 간판을 내걸어 순수한 외국어 교육기관으로 위장하여 상해공산주의소조의 활동을 비호하였다.

상해외국어학사는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1920년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민국일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고를 냈다.¹³⁹⁾

본 학사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일본어 각 반을 나누어 설치할 예정이고 현재 이미 영어 러시아어 일본어 세 개의 반을 설립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 반은 매일 1시간씩 수업한다. 문법은 중국인 교수에 의해서 공부하고, 발음 회화는 외국인 교수가 가르칠 것이다. 영어를 제외하고 각 반은 모두 초보(수준)에서 가르칠 것이다. 각자 한 반을 선택해서 학습하고 한달 학비는 2원을 내야한다. 며칠 안에 수업을 시작할 것인데 인원수가 많지 않다. 외국어를 학습할 뜻이 있는 자는 속히 法界 霞飛路 新漁陽里 6호 본사로 와서 등록하길 바란다.

상해외국어학사는 공개적으로 상술한 내용의 신입생 모집 광고를 냈지만, 사실 외국어학사에서 공부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각지 공산주의소조의 발기인 소개를 거쳐 온 진보적인 청년들이었다. 당시 외국어학사 활동에 참여한 이들의 회고를 통해 외국어학사 입학 과정을 추측해볼 수 있다.

먼저 肖勁光 周兆秋 任弼時 胡士廉 任岳 陳啓沃은 長沙지역의 청년들로 湖南俄羅斯研究會의 毛澤東 등의 소개를 거쳐 상해외국어학사에 입학했다. 당시 장사에서는 毛澤東 姜濟寬 方維夏 등이 호남아라사연구회를 조직하였는데 강제환이 중간사를, 모택동이 서기를 맡고 있었다. 이 연구회

138) 邱作健 俞樂濱(1989), 앞의 자료집, 7쪽.

139) 余世誠, 張升善(1988), 앞의 글, 71쪽.

는 소비에트 러시아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연구하고 관련 간행물을 발행하였다. 또한 소비에트 러시아에 사람을 파견하여 현지조사 및 유학관련 일을 연계하도록 했다. 상술한 청년들은 船山中學에서 공부한 임악을 통해 호남아라사연구회를 알게 되었고 선산중학 교장이자 진독수의 친구인 賀民范의 소개를 거쳐 연구회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상해에 외국어학사가 설립되자 효율적인 소비에트 러시아 유학을 위해 연구회는 청년들을 상해로 파견하기로 결정하였고, 장사지역 청년들은 배를 타고 상해로 떠났다.¹⁴⁰⁾ 彭述之 역시 하민범의 소개로 외국어학사에서 학습하였다.¹⁴¹⁾

호남지역에서 상해로 온 학생들은 상해사회주의청년단이 설립되기 전 조직인 滬濱工讀互助團에 참가하였다. 이 조직은 1920년 6월에 袁篤實 등 호남에서 상해로 온 몇몇 학생들이 발기한 조직이다. 羅亦農(羅覺) 卜士奇 劉少奇 任弼時 肖勁光 등이 참여하였다. 얼마 후 상해사회주의청년단이 설립되었고, 이들은 가장 먼저 사회주의청년단에 가입하였다. 호빈공독호조단은 경제적 곤란 때문에 1921년 2월 해산하였다.¹⁴²⁾

浙江지역에서는 何今亮(汪壽華) 華林(華挺生) 등이 宣中華 陳望道 俞秀松의 소개를 거쳐 상해외국어학사에 입학하였다.¹⁴³⁾ 화림은 앞서 말한 천진 북경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대표적인 아나키스트이다. 화림의 회고에 의하면 그가 杭州의 제 1 사범학교에서 공부할 당시 劉大白과 陳望

140) 肖勁光, 「赴蘇學習前後」, 『黨史資料叢刊』, 1981 第1期, 5~6쪽.; 「蕭勁光回憶旅俄支部前後的一些情況」, 앞의 자료집(1989), 38쪽. (일)석천정호는 호남아라사연구회를 거쳐 상해로 온 청년들 중에서 유소기를 포함시키고 있다.((日)石川楨浩(2006), 앞의 글, 172쪽.) 그러나 소경광이 유소기에 대해 회고한 자료를 보면 유소기가 아라사연구회를 통해 소경광과 같이 상해에 온 것이 아니라 상해에 온 이후에 유소기를 알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蕭勁光(1989), 「憶早期赴蘇學習時的少奇同志」, 앞의 자료집, 40쪽).

141) (日)石川楨浩(2006), 앞의 글, 172쪽.

142) 「蕭勁光回憶旅俄支部前後的一些情況」, 앞의 자료집(1989), 38쪽.; 蕭勁光(1989), 「憶早期赴蘇學習時的少奇同志」, 앞의 자료집, 40~41쪽.; 陳紹康 張擎(1989), 「首批赴俄學習的青年」, 앞의 자료집, 55~56쪽. 소경광은 회고에서 상해외국어학사에서 공부하면서 상해공독호조단 활동에 참여했고 이후 상해사회주의청년단이 설립되어 그곳에 가입했다고 했다. 그러나 상해외국어학사는 상해공산주의소조와 사회주의청년단이 설립된 이후인 1920년 9월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서술은 기억의 착오로 보인다.

143) 陳紹康 張擎(1989), 「首批赴俄學習的青年」, 앞의 자료집, 55쪽.

道가 교편을 잡고 있었다고 한다. 1920년 9월쯤 화림은 상해로 가서 영어를 공부하고 싶었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이미 절강에서 상해로 떠났던 진망도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진망도는 화림에게 『신청년』 편집직을 소개해 주었고, 상해사회주의청년단 입단을 권유했다. 그러나 화림은 유대백에게서 진독수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입단을 주저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는 전국적으로 아나 · 볼 논쟁이 전개되던 시기로 아나키즘 성향의 화림에게 유대백의 말이 일정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1920년 12월 즈음에 유수송이 다시 화림을 찾아와 청년단 참가를 바랐다. 또한 영어공부 대신 러시아어를 공부한 뒤 소비에트 러시아로 유학을 떠날 것을 제안하였고 이 시기에 비로소 화림은 상해외국어학사에 입학하였다.¹⁴⁴⁾

이 외에도 吳葆蓁 蔣光慈 등은 高語罕의 소개로 蕪湖지역에서 상해로 왔고 진독수를 찾아가 외국어학사에 입학하였다.¹⁴⁵⁾ 또한 周伯棣는 유수송의 소개로 상해외국어학사에 입학하였다. 그는 1919년 북경에서 俞秀松 施存統과 함께 북경공독호조단에서 활동했었는데 당시의 인연으로 함께 공부하게 된 것이었다. 그는 상해외국어학사에 입학하기 전에 胡適을 위해 필사작업을 하기도 했다.¹⁴⁶⁾ 그러나 주백체는 화림과 함께 외국어학사에서 공부할 당시 소비에트 러시아로 유학 가는 것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유학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결국 중국에 남아 혁명 활동을 계속해나갔다.¹⁴⁷⁾ 주백체와 같이 상해외국어학사 학생 중에서는 소비에트 러시아로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유학을 떠나지 않은 학생도 있었고, 유학 가는 것을 열망했지만 선발되지 못하여 떠나지 못하는 이도 있었다. 이처럼 상해외국어학사에서 공부한 모든 이가 소비에트 러시아로 유학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曹靖華는 신문화운동 당시 하남성 대표로 상해에서 개최한 中華全國學

144) 華林(1989), 「漁陽里六號和赴俄學習的情況(1966年4月)」, 앞의 자료집, 32~33쪽.

145) 邱作健 俞樂濱(1989), 앞의 자료집, 8쪽.

146) 「周伯棣自傳(節錄)」, 앞의 자료집(1989), 35~36쪽.

147) 華林(1989), 앞의 자료집, 33쪽.; 慕水, 「外國語學社師生名錄」, 『上海革命史資料與研究』第1輯, 開明出版社, 1992, 197쪽.

生聯合會 제 2차 대표대회에 참가한 인물로 이후에 安徽大統小學에 가서 공부했다. 그때 안휘지역 청년들의 대표인 蔡曉舟이 無湖와 상해를 왕래 하며 안휘지역의 진보청년들이 상해로 올 수 있도록 소개해주었는데 조정 화에게도 편지를 써서 사회주의청년단에 가입하길 희망했다. 결국 조정화는 1920년 말에 외국어학사에 입학하였다.¹⁴⁸⁾

馬念一(馬哲民)과 丁勒生은 包惠僧의 소개로 武漢에서 상해로 와서 상해외국어학사와 사회주의청년단에서 활동하였다.¹⁴⁹⁾ 魏以新은 1920년 武昌지역에서 상해로 와서 同濟醫工專門學校 독일어과에서 공부했다. 그는 여름방학기간에 이한준과 양명재를 알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의 소개로 사회주의청년단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그가 상해외국어학사에서 공부를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¹⁵⁰⁾ 그는 1922년 사회주의청년단을 탈퇴하는데, 단 활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어려워 탈퇴의사를 밝혔다.¹⁵¹⁾ 위이신과 같이 공부와 혁명 활동을 같이 수행하는 것이 고되고 힘들어 혁명 활동을 그만두는 청년들도 있었다.

한편, 四川지역에서 상해외국어학사로 공부하러 온 청년들이 있었는데, 廖劃平 秦慧僧(秦滌清 抱朴)¹⁵²⁾ 杜小馬 徐敦讓이다. 이들은 앞서 말한 사천지역 아나키스트 단체인 적사에서 파견되었는데, 陶必觀의 소개를 거쳐 상해외국어학사에 입학했다.¹⁵³⁾ 당시 사천지역에서 17명이 상해로 왔다.

148) 「曹靖華談中國社會主義青年團早期情況(1982年10月27日于北京醫院)」, 앞의 자료집(1989), 50~51쪽.

149) 包惠僧, 「回憶漁陽里六號和中國勞動組合書記部(1954年3月18日)」, 『一大'前後』(二), 人民出版社, 1980, 352쪽. 포혜승의 회고에서 3명의 무한사회주의청년단원이라고 언급되어 있지만 이름을 알 수 있는 이는 마념일과 정특생뿐이다. 마념일의 경우는 상해외국어학사 학생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만 정특생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외국어학사에서 공부하였는지 분명하게 알 수 없다.(慕水(1992), 앞의 글, 200쪽.)

150) 慕水(1992), 앞의 글, 198쪽. 위이신은 상해외국어학사 학생 목록에 포함은 되어있으나 본문에 '1920年秋入團'이라고 쓰여져 있어서 외국어학사에서 공부하였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

151) 「魏以新談社會主義青年團成立時的情況(1980年6月)」, 앞의 자료집(1989), 48~49쪽.

152) 진혜승에 대해서 張澤宇(2009)는 1923년 9월 중순 국내에서 출발한 유학생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진혜승이 1924년 『晨報附刊』에 게재한 「赤露旅行記」를 살펴보면 그는 자신이 소비에트 러시아로 떠난 날짜를 1921년 2월 모일로 회고하고 있어 장택우의 서술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抱朴, 「赤露旅行記」, 앞의 자료집(1992), 224쪽).

그 중에서 요희평 진혜승 두소마 서돈양만이 소비에트 러시아로 떠났고, 나머지는 경비 부족 혹은 환전의 어려움 때문에 할 수 없이 상해외국어학사에 남아서 공부하였다.¹⁵⁴⁾

상해외국어학사는 신입생 모집 광고에서 살펴보았듯이 러시아어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반 등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주로 러시아어를 배우는 것을 선호하였다. 러시아어 교사는 보이틴스키 부인인 쿠츠네조바와 교장이었던 양명재가 맡았다. 그리고 학생이 많을 때에는 장작림이 주모스크바공사로 파견했던 李家鰲의 외손녀 王元齡을 초빙하여 교편을 맡겼다. 일본어는 이달, 영어는 원진영, 프랑스어는 이한준이 가르쳤다. 또한 에스페란토반을 개설하기도 했는데, 에스페란토는 『상해아문생활보』의 기자였던 스테파니가 가르쳤고, 학비는 무료였다.¹⁵⁵⁾

상해외국어학사 학생들은 주로 오전에는 러시아어를 비롯한 어학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여러 가지 사회활동에 참가하였다. 예를 들어 강철판에 글자를 새기거나 전단을 인쇄하는 것이었다. 또는 기기공장이나 방직공장 노동자들에게 여러 가지 선전공작을 하거나 직접 노동을 했고, 기념일이 되면 시위에 참가하기도 했다. 매주 일요일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을 학습했는데 주로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하여 강연을 하였다. 당시 상해 복단대학 교수였던 진망도가 자주 초청되었는데, 그가 번역한 『공산당선언』을 가지고 강의했다.¹⁵⁶⁾ 또한 외국어학사는 도서관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서관 관리는 주백체가 맡았다. 도서관의 책은 沈雁冰이 자신의 원고비 80원을 기부하여 구매할 수 있었다고 한다.¹⁵⁷⁾

153) 楊世元(1996), 앞의 글, 5쪽.

154) 「[附]俄游通信」, 앞의 자료집(1989), 72쪽.

155) 邱作健 俞樂濱(1989), 앞의 자료집, 9쪽.; 許之楨, 「關於漁陽里六號的活動情況(1959年6月)」, 앞의 자료집(1989), 30쪽.; 華林, 「漁陽里六號和赴俄學習的情況(1966年4月)」, 앞의 자료집(1989), 33쪽.

156) 「柯慶施談社會主義青年團早期的情況(節錄)(1957年3月4日)」, 앞의 자료집(1989), 26쪽.; 蕭勁光, 「憶早期赴蘇學習時的少奇同志」, 앞의 자료집(1989), 41쪽.

157) 「周伯棣自傳(節錄)」, 앞의 자료집(1989), 36쪽.

상해외국어학사는 1921년 1월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청년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청년운동을 지도하였다. 교육위원회의 주된 임무는 상해외국어학사에서 우수한 청년과 사회주의청년단 단원을 선발하여 소비에트 러시아로 파견하는 것이었다. 위원회의 주임은 포혜승이 부주임은 양명재가 맡아 소비에트 러시아로 가는 학생들에게 소개장을 발급하였다.¹⁵⁸⁾ 조정화의 회고에 따르면 포혜승 양명재가 발급한 소개장의 모양은 가늘고 긴 세로로 된 종이에 타자기로 친 러시아어가 쓰여 있었다고 한다. 이것을 청년들은 "여권"이라고 불렀는데, 백군에게 발각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고, 만약에 여권을 잃어버리면 홍군에게 신분을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소중히 다루어야 하는 것이었다고 하였다.¹⁵⁹⁾

한편 유수송은 사회주의청년단 서기 신분으로서 청년 코민테른 당원이었던 그린의 요청에 응하여 청년 코민테른 제 2차 대표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소비에트 러시아로 떠났다. 그는 홀로 1921년 3월 29일 상해에서 북경으로 가는 쾌속열차를 타고 떠났는데, 북경에서 봉천까지 열차를 타고 갔고 하얼빈 만주리 치타를 거쳐 모스크바에 당도하였다.¹⁶⁰⁾

유수송의 소비에트 러시아 파견 목적은 첫 번째로 대회에 참석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단 서기 신분으로 먼저 소비에트 러시아로 가서 이후에 파견되는 청년들 유학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공부하는 것이었다.¹⁶¹⁾ 유수송은 청년 코민테른 제 2차 대표대회에 참석하여 중국 사회주의청년단 공작에 대해 보고하였다. 그리고 소비에트 러시아에 대략 1년 동안 동방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원동

158) 包惠僧, 「中國共產黨第一次代表大會的幾介問題(1978年8月)」, 앞의 글(1980), 373~374쪽.; 余世誠, 「楊明齋在早期中國革命中的活動(節錄)」, 앞의 자료집(1989), 63쪽.

159) 「曹靖華談中國社會主義青年團早期情況(1982年10月27日于北京醫院)」, 앞의 자료집(1989), 52쪽.

160) 俞秀松, 「1921年4月6日給父母親和家中諸人的信」, 앞의 글(1999), 185~186쪽.

161) 邱作健 俞樂濱(1989), 앞의 자료집, 14쪽.; 陳紹康 張擎, 「首批赴俄學習的青年」, 앞의 자료집(1989), 56쪽.; 羅征敬, 「共產主義事業的開拓者-劉秀松烈士(節錄)」, 앞의 자료집(1989), 66쪽. 진소강 장경 연구에서는 유수송이 상해에서 소비에트 러시아로 떠난 날은 1921년 4월 6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유수송이 부모님께 보낸 편지에 근거해 보면 그가 떠난 시기는 1921년 3월 29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국 공산당과 민족혁명 제 1차 대표대회에 참석하였고, 중국대표단 대표의 신분으로 원동 청년단 대표대회에도 참가하는 등의 혁명 활동을 수행하였다.¹⁶²⁾

유수송은 1922년 杭州로 돌아와 당 건립 활동을 벌이다가 1925년 국공합작으로 인해 개인 명의로 국민당에 가입하여 국민당원 신분으로 모스크바 중산대학에 입학하였다. 그는 중산대학 학생회 주석, 당단서기 및 중산대학이 성립한 소련공산당지부의 지부위원회를 맡아 소련유학생들 사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후에 중산대학 내에서 벌어진 학생들 간의 파벌투쟁에 휘말려 왕명 등에게 견제를 받았고, 1927년 국공합작 결렬과 파벌투쟁의 이유로 중산대학을 떠나 레닌학원에 입학하여 공부를 지속하였다.¹⁶³⁾

상해외국어학사에서 청년들이 소비에트 러시아로 유학을 떠난 것은 상해공산주의소조의 결정과 지도 아래서 사회주의청년단의 교육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실행한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상해에서 청년들이 소비에트 러시아로 떠나는 방법이 반드시 상해외국어학사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1920년 3월 무렵 설립된 新華學校는 청년들에게 에스페란토를 가르치고 소비에트 러시아 유학을 알선했다. 이 학교는 아나르코-볼셰비키였던 스테파니를 비롯해 陸式楷 盛國城 胡愈之 등이 관련된 무정부공산주의동지사의 외곽조직이었다. 또한 진독수 심현려 등이 이 학교에서 종종 강연을 했기 때문에 상해공산주의소조의 활동과 중복되기도 하였다.¹⁶⁴⁾

스테파니는 본문 II장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1919년 겨울 중국으로 와서 『상해아문생활보』 신문기자의 신분으로 활동하면서 소비에트 러시아와 코민테른을 위해 공작하였다. 스테파니는 상해의 ана키스트들과 함께 신화학교 안에 세계어야학을 개설하고 상해 세계어학회를 재건하였다.¹⁶⁵⁾

162) 陳秀萍, 『俞秀松評傳』, 中共黨史出版社, 1999, 47쪽.

163) 陳秀萍(1999), 앞의 글, 73~79쪽.

164) 에스페란토(세계어)와 중국의 ана키즘 운동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세현, 「에스페란토(世界語)와 중국 ана키즘 운동」, 『역사와 경계』 63, 2006을 참고.

165) 조세현(2006), 앞의 글, 265쪽.

또한 그는 상해외국어학사에 개설된 에스페란토반에서 학생들에게 무료로 에스페란토를 강의하였다. 스테파니는 열정적으로 에스페란토를 중국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는 중국인 외에도 상해의 한인학교에서 에스페란토를 가르쳤다.¹⁶⁶⁾ 아울러 중국인 한인 일본인 러시아인 에스페란토주의자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기도 했다.¹⁶⁷⁾

상해외국어학사에서 공부했던 청년들은 에스페란토를 좋아하였고 일부 학생들은 러시아어와 함께 에스페란토 공부를 병행하였다. 예를 들어 상해사회주의청년단 서기이자 외국어학사 비서였던 유수송은 일찍이 에스페란토를 공부하였다. 그는 1920년 6월 29일 일기에서 자신이 현재 에스페란토를 공부하고 있다고 썼다.¹⁶⁸⁾ 그러나 유수송이 신화학교에서 공부했는지 상해외국어학사 에스페란토반에서 공부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당시에 마르크스주의뿐 만아니라 아나키즘에도 관심이 있었던 유수송을 비롯한 일부 청년들은 에스페란토를 러시아어와 함께 러시아혁명에 다가가는 교두보로 인식하였다. 또한 에스페란토 강의가 무료였다는 점도 학생들에게 환영받은 이유가 되었다.¹⁶⁹⁾

스테파니는 사천지역에서 상해로 와서 공부한 요희평 진혜승 두소마 서돈양에게 소비에트 러시아로 갈 수 있도록 소개장을 써주었다. 이 네 사람은 상해외국어학사에서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스테파니의 소개장을 가지고 소비에트 러시아로 갔을까? 1921년 3월 9일 요희평이 소비에트 러시아로 유학을 가는 도중에 쓴 편지에서 그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¹⁷⁰⁾

양명재가 말하길 “러시아어를 6개월 학습한 후에 (소비에트 러시아로) 결국 떠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러

166) 李丹陽 劉建一(2003 第3期), 앞의 글, 46쪽.

167) 鄭佩剛(1984), 앞의 자료집, 960쪽.

168) 「俞秀松日記(Tuesday, 29, June, 1920)」, 『上海革命史資料與研究』第1輯, 開明出版社, 1992, 280쪽.

169) 朱政(1992), 앞의 글, 181쪽.; (日)石川楨浩(2006), 앞의 글, 173쪽.

170) 「[附]俄游通信」, 앞의 자료집(1989), 72쪽.

시아정부의 답변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세계어를 가르치는 러시아인이 말하길 “우리들이 (소비에트 러시아로) 가는 것을 소개해 줄 수 있는데, 러시아 정부는 학생들을 매우 환영하기 때문이다. 저지하는 것은 중국정부의 밀정이다.” 라고 하였다. 이번에 우리들이 떠나는 것은 그(러시아인 세계어 교수)의 소개에 의한 것으로 다른 문제가 있는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다.

당시 요획평은 외국어학사에서 러시아어를 공부하는 동시에 에스페란토반에서 스테파니의 수업을 들었다. 6개월 정도 공부를 한 후에 요획평을 비롯한 4명은 소비에트 러시아로 유학을 가고자 했지만 양명재는 소비에트 러시아 정부의 답변을 기다려야 하고 떠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불투명하다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천지역 청년들은 평소 알고 지낸 신화학교 학생들을 통해 스테파니가 소비에트 러시아로 유학 가는 일에도 적극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소개장을 받았다.¹⁷¹⁾ 스테파니의 소개장을 가지고 소비에트 러시아로 떠난 사천지역 학생들은 소비에트 러시아 국경에 진입할 때 소개장을 내보이자 그 지역의 세계어학회 사람들과 연계 할 수 있었고 그들의 도움으로 모스크바에 무사히 도착하였다.¹⁷²⁾

상해에서 에스페란토를 가르치며 초보적인 공산주의자들과 아나키스트 사이를 왕래하는 스테파니의 역할은 천진 북경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치며 아나 · 볼 합작을 주도했던 폴레보이의 역할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은 주목해야할 부분이다.¹⁷³⁾

상해에서 소비에트 러시아로 파견된 청년들의 여정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회고에 의거해 진행할 것인데 개인마다 자신이 어떠한 무리에 속해 있

171) (일)석춘정호는 스테파니가 청년들에게 독자적으로 소비에트 러시아 유학을 알선한 것 사실에 대해서 보이틴스키와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이야기한다((日)石川楨浩(2006), 앞의 글, 174쪽).

172) 朱政(1992), 앞의 글, 182쪽.

173) 조세현(2005), 앞의 글, 232쪽.

었는지에 대해서는 회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유학생들이 크게 세 무리로 분배된 상황에서 또 작은 조로 나뉘어 파견되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파견 날짜에 대한 회고는 혼선을 빚어내고 있다. 또한 각각의 무리로 파견된 청년들은 여러 노선을 취해 떠났지만 여정 도중에 만나서 함께 모스크바로 향하기도 하였으므로 그들이 몇 번째 무리에 배치되어 언제 파견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본고에서는 유학생들이 어떤 노선을 취해서 소비에트 러시아로 떠났는지를 고찰해보면서 당시 중국과 러시아간 교통로와 혼란스런 정치적 상황을 살펴보는 데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상해에서 소비에트 러시아로 떠나는 경로는 육로와 해로를 통한 세 가지 노선이 있었다. 첫 번째 노선은 육로로서 상해-북경-봉천-하얼빈-만주리-치타 노선이었다. 두 번째 노선은 해로로서 상해-대련-하얼빈-만주리-소비에트 러시아로 진입했다. 세 번째도 해로로 가는 것이었는데 상해-일본 나가사키-블라디보스토크-하마로프스크로 가는 노선이었다.

상해외국어학사에서 파견된 청년들은 먼저 크게 세 무리로 나뉘어서 소비에트 러시아로 떠날 예정이었고, 또한 각각의 무리에서 세부적으로 두 세 명씩 작은 조를 만들어 떠났다. 그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 국경지역에 중국 군벌, 일본 군대, 소비에트 러시아 정부에 반대하는 백군과 홍군 등 다양한 세력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여러 명이 무리지어 다닐 경우 주의를 끌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년들은 재봉사나 이발사 상인 기사 등으로 변장하여 신분을 위장하였다. 그러나 운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군벌세력에게 체포되기도 하였다.

먼저 첫 번째 노선은 상해에서 출발하여 기차를 타고 북경에 가서 북경-봉천 기차로 환승해야 했다. 그리고 장작림이 규제하는 지역인 봉천을 거쳐 하얼빈에 도착하여 다시 중동철도로 환승하여 만주리를 거친 다음 소비에트 국경 치타로 들어가는 노선이었다. 육로 노선을 취하여 떠난 이들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회고를 자세히 고찰해 보면 앞서 언급한 유수송을 비롯해 정확히 이름을 알 수 없지만 20명 정도였던 것으로 사료된

다. 許之楨의 회고에 따르면 육로를 통해 떠났던 이들이 하얼빈에서 장작림 부하에게 소비에트 러시아로 떠나는 것이 발각되어 체포되었다고 했다.¹⁷⁴⁾

첫 번째 무리로 소련으로 떠난 이들은 대략 20명 정도였다. 모두 입은 옷이 매우 예뻐했는데, 그들 대다수가 지주 관료의 자녀였고, 사상은 매우 복잡하였다. 그들이 하얼빈에 도착했을 때 장작림 부하에게 발각되어 소련으로 나아가는 것을 저지당했고 투옥되었다. 돈과 세력이 있는 사람들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 결과 투옥된 이들은 모두 빈곤한 자들이었다….

육로노선을 취하여 상해에서 떠났던 청년들은 북경 무정부당호조단과 사회주의청년단에서 유학길에 올랐던 ана키스트들과 마찬가지로 하얼빈에서 장작림 부하에게 소비에트 러시아로 떠나는 것이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렇게 장작림 부대는 소비에트 러시아로 떠나는 청년들을 항상 예의주시 하고 있었고 그들의 월경을 저지하였다. 그래서 유학생들에게 이 노선을 택해 장작림 규제 지역을 통과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로 인식되었고 이후에는 모든 청년들이 해로를 취해 소비에트 러시아로 떠났다.

두 번째 노선인 해로를 통해 떠난 청년들은 1921년 3월 9일¹⁷⁵⁾ 출발한 요희평 진혜승 두소마 서돈양이다. 이들이 떠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있는 이유는 요희평이 1921년 3월 19일 하얼빈에서 사천지역 무정부주의단체인 적사의 동지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상해에서 대련으로 배를 타고 소비에트 러시아로 향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요희평 등이 상해외국어학사의 두 번째 무리에 배치되어 출발한 것으

174) 許之楨, 『關於漁陽里六號的活動情況(1959年6月)』, 『“一大”前後』(2), 人民出版社, 1980, 58쪽.

175) 요희평과 함께 떠난 진혜승은 자신이 상해에서 소비에트 러시아로 떠난 날짜를 1921년 2월 모일이라고 회고하고 있다(抱朴(1992), 앞의 자료집, 224쪽). 그러나 진혜승의 회고는 1924년에 쓰여졌기 때문에 1921년 3월 19일 요희평이 쓴 편지가 더 신빙성이 높다.

로 서술하고 있다.¹⁷⁶⁾ 그러나 네 사람은 신화학교 스테파니의 소개장을 가지고 떠났기 때문에 상해외국어학사를 통해서 떠났다는 서술은 정확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진혜승의 회고에서 그들이 단체의 소개 없이 상해를 떠났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은 상해외국어학사의 파견 무리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떠났을 가능성이 크다. 진혜승은 사천지역 동료 이외에 江蘇省 출신의 7명의 청년들과 함께 떠났다고 했다.¹⁷⁷⁾

그들은 대련에서 남만철도로 갈아타고 장춘을 거쳐 하얼빈까지 갔다. 그리고 다시 중동철도로 갈아타 만주리에 도착한 다음 소비에트 러시아 국경에 진입했다. 이 노선은 당시 장작림의 규제지역을 돌아서 갈 수 있었지만 남만철도는 여전히 장작림이 규제하고 있었다. 또한 이 철도는 일본 러시아 공동 관리에 속해 있었다. 여정 당시, 요희평은 일본인의 사무 처리 능력과 중동철도와 달리 남만철도의 질서정연한 관리에 매우 감탄했다. 아울러 하얼빈을 일본 러시아 두 세력이 점거하고 있어 발붙일 곳 없는 중국인의 처지가 그들의 여정을 힘들게 했다고 회고하였다.¹⁷⁸⁾

세 번째 노선도 해로로 떠나는 노선으로 상해에서 배를 타고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시베리아철도로 갈아타 하바로프스크에 도착했다. 이 노선은 장작림과 일본의 규제지역을 돌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여 많은 청년들이 이 노선을 취해 소비에트 러시아로 떠났다.¹⁷⁹⁾ 그러나 이 노선을 취해 떠난 이들 중에서도 군벌이나 백군의 위협을 받는 등 위험천만한 고비를 넘긴 청년들도 있었다.

먼저 이 노선을 취해 떠난 무리 중 하나는 華林 羅亦農(羅覺) 彭述之

176) 요희평 등이 상해외국어학사 두 번째 무리로 파견되었다고 서술하는 연구는 邱作健 俞樂濱(1988)의 연구이다. 그리고 徐行(1997)의 연구에서는 요희평 무리가 상해외국어학사에서 파견된 첫 번째 무리에 속해 있었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첫 번째 무리가 1921년 3월 9일에 파견되었다고 서술한 것으로 보아 요희평의 편지에 근거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 철저한 고증 없이 서술한 것이다.

177) 抱朴(1992), 앞의 자료집, 224쪽.

178) 「[附]俄游通信」, 앞의 자료집(1989), 73쪽.

179) 邱作健 俞樂濱(1989), 앞의 자료집, 13쪽.

任作民 韓慕濤(庄文恭) 卜士奇 王壽華(何今亮) 등 12명이었다. 다른 한 무리는 劉少奇 任弼時 肖勁光 蔣光慈(蔣光赤) 柯慶施 許之楨 曹靖華 王一飛 傅大慶 梁百達(梁伯台) 韋素園 吳葆萼 등이다. 이들은 또 여러 소조로 나뉘어 파견되었고 여정 도중 만나서 함께 모스크바로 떠났다.

화림의 회고에 의하면 그와 일부 무리는 涌興輪을 타고 일본 나가사키로 가서 곧바로 블라디보스토크로 갔다고 한다. 당시 블라디보스토크는 일본간섭군의 규제 하에 있었다. 12명의 청년들은 세 개의 소조로 나누어 상륙했는데 상해외국어학사에서 발급한 소개장을 일본군에게 들키지 않게 잘 숨긴 채 교섭상대를 만나 기차를 타고 하바로프스크로 나아갔다고 한다. 이때의 교섭상대는 자료 부족으로 확실하지는 않으나 북경에서 무정부당호조단의 아나키스트들이 소비에트 러시아로 유학 떠날 때 도움을 주었던 이바노프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하바로프스크에서 거의 한 달을 기다렸는데 5월에 흑룡강이 열기 시작할 때 黑河에 도착했다고 한다. 당시 흑하(흑룡강)에는 華工會가 있었는데 화림 왕수화(하금량)는 남아서 공작을 하면서 2~3개월 머물렀고, 팽술지 임작민은 소련 유격대와 함께 먼저 모스크바로 떠났다고 한다. 왕수화를 제외하고 화림은 나중에 도착한 梁百達(梁伯台) 何公冕 등과 함께 이르쿠츠크로 가서 보이틴스키를 만났다고 하였다. 보이틴스키는 1921년 1월 즈음에 상해에서 북경을 거쳐 이르쿠츠크로 돌아갔다. 그는 코민테른 집행위원회가 설립한 원동서기처의 비서 공작을 맡고 있었다.¹⁸⁰⁾

보이틴스키는 청년들에게 소비에트 러시아가 대기근이 들어 모스크바로 갈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화림 등의 무리는 하는 수 없이 이르쿠츠크에 남아 코민테른 원동국에서 공작을 하거나 귀국하는 등 각자의 길을 걸었다. 화림은 4~5개월 동안 많은 소비에트 러시아 당 단원과 접촉하면서 모스크바로 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고 1922년 4~5월 무렵에서야 결국 모스크바 동방대학 중국반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¹⁸¹⁾

180) 于俊道, 「維經斯基」, 『中國革命中的共產國際人物』, 四川人民出版社, 1986, 213쪽.

181) 華林, 「漁陽里六號和赴俄學習的情況(1966年4月)」, 앞의 자료집(1989), 34쪽.

한편, 소경광의 회고에 의하면 소경광 유소기 임필시 등 10여명의 청년들이 상해에서 배를 타고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그들은 러시아인을 만났다. 이 때 소경광 무리가 만난 러시아인은 앞에서도 계속 언급된 이바노프이다. 소경광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¹⁸²⁾

少奇, 羅覺, 吳芳은 우리들의 책임인이었다. 그들은 미리 약속한 암호에 따라서 블라디보스토크대학의 교수 이바노프를 만났다. 그는 코민테른이 이곳에 파견하여 비밀공작을 수행하고 있었고 이후의 여정은 모두 그들에 의해 안내되었다.

소경광의 회고에서 미리 약속된 암호는 이바노프가 입에 불붙이지 않은 쥘련을 물고 있는 것이었다.¹⁸³⁾ 암호를 통해 서로를 알아보고 난 뒤, 일행을 작은 조로 나누어 다음 여정을 준비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은 모두 이바노프가 계획한 것이었다.

소경광 유소기 임필시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바로프스크로 떠났는데 재봉사 이발사로 각각 변장하여 신분을 숨겼다. 당시 블라디보스토크는 일본 점령 하에 있었고, 하바로프스크는 소비에트 러시아 홍군이 점령하고 있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로프스크 사이에 있는 伊曼河(우수리강 주요 지류)를 경계로 白區와 紅區로 나뉘어 있었다.

당시 중국 군벌 정부는 소경광 유소기 임필시 등 청년들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자 이들을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에게 주시하도록 했다

182) 肖勁光, 『肖勁光回憶錄』, 解放軍出版社, 1987, 19쪽.

183) 「李達談1920-1923年的社會主義青年團(1957年1月)」(節錄), 앞의 자료집(1989), 22쪽. 이달의 회고에서 나역농 임필시 등이 하얼빈역에서 러시아 친구를 만난 후에 소비에트 러시아로 출국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소경광의 회고에 의하면 나역농이 아니라 소경광 유소기 임필시 등이 함께 여정을 떠났다. 또한 그들이 러시아인을 만난 장소는 하얼빈역이 아니라 블라디보스토크였다. 이달은 소비에트 러시아로 유학을 떠난 인물이 아니어서 당시 상황을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의 유학 여정에 대한 회고는 신빙성이 다소 떨어진다.

고 한다. 총영사관은 청년들의 이름과 어디에서 왔는지 자세히 알고 있었는데 특히 그들을 손문이 소비에트 러시아로 파견한 대표로 오인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劉少奇 吳芳이 총영사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영사관 사람들은 유소기에게 무슨 일로 소비에트 러시아로 가는지 심문하였다. 유소기는 재봉일을 한다고 대답했는데 당시 중국의 남방인이 북방에 와서 노동을 하거나 재봉 이발 등 수공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소기는 호남사람으로 호남말을 하자 영사관 사람들은 대부분 알아듣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유소기 등을 석방시켰다.

그러나 중국 군벌정부는 포기하지 않고 유소기를 비롯한 청년들이 하바로프스크에 도착할 때까지 영사관의 사람을 파견해 쫓도록 하였다. 하지만 하바로프스크는 이미 홍군의 통치권 하에 있었고 더 이상 그들의 역량은 미치지 못했다. 하바로프스크에 도착한 청년들은 며칠 머물면서 10여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려 다시 모스크바로 떠났다. 하바로프스크에서 흑하(흑룡강)까지 가는 길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하나는 배를 타고 가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기차를 타는 것이었다. 소경광과 유소기 등은 배를 탔고 임필시 나역농 등은 기차를 타고 떠났다.

그러나 하바로프스크에서 흑하(흑룡강)까지의 여정도 안전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가는 경우에 배가 흑룡강에서 상행하여 나아가는데 어떤 때에는 중국수역을 지나가고 어떤 때에는 러시아수역을 지나갔기 때문이다. 중국수역을 지날 때에는 배를 수색당하기도 하였다.

흑하(흑룡강)에서 모스크바까지는 모두 기차를 타고 떠났는데 연료가 모자라서 기차는 가다가 멈추기를 반복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 도착하는데 거의 3개월을 소비했다고 한다. 청년들은 여정 중에 러시아혁명 이후 소비에트 러시아 사람들의 비참한 생활을 보았다. 소경광 유소기 일행이 모스크바에 도착했을 때는 코민테른이 제 3차 대표 회의를 개최할 시기였다. 그들은 이 회의를 교대로 방청하였는데 레닌도 이때 처음 보았다고 한다. 그들은 대회가 끝난 후에 모스크바 동방대학 중국반에 들어가 공부하였다.¹⁸⁴⁾

조정화 왕일비 위소원 오보악 등 무리도 역시 세 번째 노선인 상해-나가사키-블라디보스토크-하바로프스크 노선을 따라 떠났다. 조정화를 비롯한 무리가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후에 마적을 만났다고 한다. 청년들이 기차나 부상으로 변장하였기 때문에 마적들의 약탈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청년들은 모두 합쳐 오직 3원의 여비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마적을 피하기 위해 청년들은 기차로 뛰어올랐고 우연히 홍군을 만나 구출되었다. 조정화는 나중에 귀국한 후에 소비에트 러시아로 가는 여정을 「烏蘇里一夜」라는 제목으로 극본을 써서 1923년 6월 4일 『신보』 부간에 실었다.¹⁸⁵⁾

세 번째 노선을 취해간 무리 중에서 소조로 나뉘어 파견된 이 중에 柯慶施와 許之楨의 경우는 가경시가 집으로 보낸 편지를 통해 떠난 날짜와 여정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1921년 5월 30일 가경시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에서 그는 허지정 등과 함께 5월 16일에 배를 타고 청도 연대를 거쳐 나가사키로 갔다. 나가사키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는데 그 전날이 바로 백군이 블라디보스토크를 점령한 날이었다. 어쩔 수 없이 가경시와 허지정 일행은 기차를 타고 스파스크달니¹⁸⁶⁾에서 수일 머물렀지만 나아갈 방법이 없어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왔다. 여비를 거의 소진해버린 가경시와 허지정은 상해로 돌아왔다.

가경시는 상해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장국도가 그를 남경사회주의청년단 대표로 원동 노동인민대회 및 원동 혁명 청년회의에 참가토록 하였다. 가경시는 이 기회를 빌어 회의에 참석한 후에 동방대학에서 공부하려고 했지만 장국도가 허락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1922년 여름에 상해

184) 「蕭勁光回憶旅俄支部前後的一些情況」, 앞의 자료집(1989), 38쪽; 蕭勁光, 「憶早期赴蘇學習時的少奇同志」, 앞의 자료집(1989), 42~44쪽.

185) 邱作健 俞樂濱(1989), 앞의 자료집, 14쪽; 「曹靖華談中國社會主義青年團早期情況(1982年10月27日于北京醫院)」, 앞의 자료집(1989), 52~53쪽.

186) 가경시의 딸인 柯六六가 아버지의 편지에 의거해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가경시가 블라디보스토크가 백군에 점령되어 기차를 타고 '스바스'로 이동했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스바스는 소비에트 러시아 지역인 스파스크달니일 가능성이 높다.

로 돌아왔다. 결국 소비에트 러시아 유학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¹⁸⁷⁾

상해외국어학사는 1920년 9월 설립되어 1921년 7월까지 밖에 지속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상해외국어학사 설립을 주도했던 보이틴스키가 1921년 초에 귀국하였고, 그의 일행이 광주로 떠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상해외국어학사는 재정난에 봉착하였고, 1921년 5·1절 행사에 참여하고 전단을 뿌린 죄로 프랑스 조계 경찰이 외국어학사를 수색하자 결국 학생들을 해산시키고 문을 닫았다.¹⁸⁸⁾ 중국공산당이 정식으로 성립된 이후에는 국내에서의 소련유학생 파견은 中央宣傳教育委員會가 담당하였고, 국외는 中共旅歐總支部에서 책임지게 되었다.¹⁸⁹⁾

요컨대, 상해외국어학사는 상해에서 청년들을 소비에트 러시아로 유학 보내는 소개소 역할 및 중국의 혁명 간부 양성을 위해 설립된 최초의 교육기관이었다. 전국 각지의 청년들은 각지의 공산주의소조의 발기인 소개를 거쳐 상해외국어학사에 입학하였다. 이들 청년들은 초보적인 공산주의자를 비롯하여 아나키스트 등 다양한 사상을 신봉하고 있었다. 이들은 상해외국어학사에서 러시아어 학습을 비롯한 실제 혁명 활동에 참여하면서 소비에트 러시아 유학을 준비하였고 대부분의 청년들이 1921년 초에 소비에트 러시아로 떠났다. 그들은 육로와 해로를 통해 여정을 떠났는데, 가는 도중에 군벌의 체포나 백군을 만나는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이 동방대학 중국반에 입학하여 그들의 꿈을 실현하였다.

아울러 상해외국어학사와 더불어 상해에서 소련유학을 알선했던 기관인 신화학교는 아나키즘을 신봉하는 일부 청년들을 소비에트 러시아로 유학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특히 상해외국어학사와 신화학교에서 에스페란토를 강의했던 스테파니의 역할은 주목할 만하다.

187) 柯六六, 「父親柯慶施加入社會主義青年團前後」, 『百年潮』, 2007, 44~45쪽.

188) 邱作健 俞樂濱, 「外國語學社」, 앞의 자료집(1989), 11~12쪽.

189) 郝世昌, 李亞晨, 『留蘇教育史稿』, 黑龍江教育出版社, 2001, 70쪽.

IV. 결론

본고는 제 1세대 소련유학생이 형성된 배경과 파견과정에서 소비에트 러시아와 코민테른이 파견한 사자들의 원조가 중국의 내재적 요인과 함께 또 다른 배경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본고는 기존 연구에서 주목했던 보이틴스키뿐 만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이바노프 폴레보이 스테파니 등 소비에트 러시아 밀사들의 활동에 주목하여 서술을 전개하였다.

필자는 보이틴스키 일행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북경 상해지역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였던 이바노프 폴레보이 스테파니 등이 당시 진보적인 혁명가들과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틴스키 일행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에 손쉽게 혁명가들과 접촉할 수 있었고, 청년들의 소비에트 러시아 유학도 추진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20년 4월 파견된 보이틴스키 일행은 북경 상해지역에서 공산주의(사회주의)운동을 효율적으로 착수하기 위해 조직적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각지에 혁명국 공산주의소조 사회주의청년단 등이 수립되었다. 상술한 조직들은 구성원이나 수행한 업무의 중복 때문에 초보적인 공산주의자들과 ана키스트들 간의 기억의 혼선을 빚어내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조직이 아나 · 볼 합작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고, 이로 인해 ана키스트들도 소비에트 러시아 유학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비록 1921년 초반부터 진행된 아나 · 볼 논쟁으로 인해 특히 북경지역에서는 초보적인 공산주의자들과 ана키스트들이 조직적인 분열을 겪었지만 서로의 조직에 참여하면서 함께 사회운동을 이끌어 나갔고 유학생을 파견하는 일도 함께 진행하였다. ана키스트들 이외에도 소비에트 러시아로 떠난 청년들은 다양한 사상을 신봉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1920년대 초기 중국 사회에서 다양한 사조가 유행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1920년대 초기에 소비에트 러시아로 유학을 떠난 청년들을 단순히 초보적인 공산주의자들로 묘사하는 기존의 연구는 문제가 있다.

또한 1920년 초기 소련유학생의 특징은 다양한 인맥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북경정부는 신생 소비에트 정권을 적대시하고 왕래를 단절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소련유학생 형성은 유법근공검학운동과 같이 공개적으로 유학예비학교를 설립하고 선전할 수 없었다. 소비에트 러시아와 관련된 모든 활동은 비밀리에 진행해야 했다. 이로 인해 소련유학생 형성은 소비에트 러시아 밀사와 초기 공산주의자들의 관계 및 청년들 간의 개인적인 연결망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소비에트 러시아 유학의 열풍으로 인해 소련유학생 모집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모집된 유학생들이 소비에트 러시아로 떠날 때에도 모든 여정 준비 및 수속 과정이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러시아 밀사들의 도움으로 국경을 넘었다. 그러나 항상 군벌들의 경계대상이 되어 운이 좋지 않으면 체포되기도 하여 소비에트 러시아 유학이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 1세대 소련유학생은 시기적으로 1920년에서 1921년 사이에 소비에트 러시아로 파견된 청년들로 이후에 유학을 오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 그들은 당시 중국과 러시아 국경의 정치적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소비에트 러시아로 떠나는 노선을 발굴하였다. 그리고 동방대학에 먼저 정착하여 중국반이 체계적으로 조직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노력하였으며 유학생회에서 가장 큰 문제인 어학으로 고통받는 후속 유학생들을 위해 직접 수업을 통역해주기도 하였다. 또한 그들은 소비에트 러시아에서도 중국공산당 활동의 연장선상으로 旅莫支部를 조직하여 뒤이어 파견된 청년들이 이 조직에 흡수되어 혁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졌다. 이러한 제 1세대 소련유학생의 역할이 있었기에 점차 1920년대 소련유학의 대규모 파견이 실현될 수 있었고, 중국의 소련유학이 안정된 체계를 갖출 수 있었다.

제 1세대 소련유학생의 규모에 대해서는 이름을 알 수 있는 이들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柯慶施	俞秀松
瞿秋白	韋素園
羅亦農(羅覺)	李仲武
杜小馬	任弼時
廖劃平	蔣光慈(蔣光赤)
卜士奇	張秀書
傅大慶	曹靖華
徐敦讓	秦慧僧(抱朴)
肖勁光	鄒進
肖華清	彭述之
梁百達(梁伯台)	何公冕
吳葆蓀	何今亮(汪壽華)
王一飛	韓慕濤(庄文恭)
劉少奇	許之楨
俞松華	華林(華挺生)

표 2 제 1세대 소련유학생 규모

이들 중에서 모스크바 동방대학에서 중국혁명을 위한 마르크스 이론 지식과 실제 공작 경험을 학습한 뒤에 귀국하여 대부분이 뛰어난 중국혁명가로 성장하였다. 예를 들어 구추백 유소기 유수송 임필시 소경광 등이다.¹⁹⁰⁾ 이들은 중국혁명의 발전과 당조직 건설에 참여하였고, 이전에 전파

190) 제 1세대 소련유학생들이 중국공산당 창립시기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설립까지 차지한

된 마르크스주의보다 체계적이고 정규화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중국에 전파하였다. 특히 구추백과 임필시 소경광 등은 레닌과 스탈린 등 대량의 소비에트 러시아 정치 서적을 번역하였다.

또한 귀국한 소련유학생들은 중국공산당 조직건설 과정에서 工農運動에 참여하여 지도자역할을 하였다. 유소기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상해에서 中國勞動組合書記部 공작과 호남에서 粵漢鐵路工人運動을 지도하는 등 중국노동운동에서 뛰어난 지도자가 되었다. 임필시의 경우는 귀국 후 활동을 통해 중국청년운동에서 지도자가 되었다. 군사방면에서는 소경광과 왕일비가 두각을 나타냈는데 이들은 귀국 후 당과 군대에서 요직을 맡게 되었다. 이 외에도 구추백 장광자 조정화 위소원등이 중국에 러시아문학을 소개하여 중국문화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요컨대 제1세대 소련유학생은 그들의 유학 경험을 통해 뛰어난 정치가 이론가 군사가 문학가로 성장했으며 다방면에서 중국혁명이 성공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소련유학생의 중국공산당 창립시기의 공헌은 새롭게 주목받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동방대학에서 유학한 중국의 제 1세대 소련유학생에만 제한적으로 주목하였지만 동방대학에는 이들 이외에도 조선 일본 베트남 등 동방 각지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었다. 이들은 각자 조선반 일본반 월남반에서 소련의 혁명이론과 경험을 학습하는 동시에 동아시아 공산주의 운동사라는 측면에서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이들의 역할 또한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직위는 徐行(1997), 앞의 글, 11~12쪽.; 張澤宇(2009), 앞의 글, 416~425쪽.; 景杉 主編, 『中國共產黨大辭典』, 中國國際廣播出版社, 1991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참고문헌】

1. 자료집, 문집

- 『包惠僧回憶錄』(1983), 人民出版社.
- 『瞿秋白文集 文學編』第1卷(1985), 人民文學出版社.
- 『瞿秋白文集 政治理論編』第 1卷(1987), 人民文學出版社.
- 葛懋春 外(1984), 『無政府主義思想資料選』(下), 北京大學出版社.
- 緬懷劉少奇編輯組(1988), 『緬懷劉少奇』, 中央文獻出版社.
- 北京大學圖書館 北京李大釗研究會 編(1989), 『李大釗史事綜錄』 北京大學出版社.
- 本書編輯組(1981), 『憶秋白』, 人民文學出版社.
- 上海革命歷史博物館編(1992), 『上海革命史資料與研究』第1輯, 開明出版社.
- 肖勁光(1987), 『肖勁光回憶錄』, 解放軍出版社.
- 楊云若, 張注洪(1982), 『維經斯基在中國的有關資料』,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餘世誠, 張升善編著(1988), 『楊明齋』, 中共黨史資料出版社.
- 餘沈陽 主編(1988), 『王一飛傳略·文存』, 中共黨史資料出版社.
- 姚雪垠 主編, 張西曼 著(1949), 『歷史回憶』, 東方書社.
- 姚守中 外(1993), 『瞿秋白年譜長編』, 江蘇人民出版社.
- 劉玉珊 外(1992), 『張太雷年譜』, 天津大學出版社.
- 劉真主 編, 王煥琛 編著(1981), 『留學教育-中國留學教育史料』, 臺灣“國立”編譯館.
- 李玉貞 譯(1997), 『聯共(布)共產國際與中國』(文件集)第1卷, 臺北:大東圖書有限公司.
- 張國燾(1991), 『我的回憶』第一冊, 東方出版社.
- 張騰霄 主編(1989), 『中國共產黨幹部教育研究資料叢書』第二輯,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張靜如 外(1984), 『李大釗生平史料編年』, 上海人民出版社.
- 中國共產黨第一次代表大會前後資料選編(1980), 『“一大”前後』(一·二·三),
人民出版社.
-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研究所編(1979), 『五四運動回憶錄』, 中國社會科學出版社.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研究所譯(1981),『共產國際有關中國革命的文獻資料
(1919-1928)』, 中國社會科學出版社.
中共中央黨史研究室第一研究部譯(1997),『聯共(布)共產國際與中國國民革命
(1920-1925)』, 北京圖書館出版社.
中華民國史檔案資料叢刊(1981),『中國無政府主義和中國社會黨』, 江蘇人民出版社.
黃平(1981),『往事回憶』, 人民出版社.

2. 단행본

-國文

서상문(2008),『혁명러시아와 중국공산당-1917~1923-』, 백산서당.
차배근(2008),『중국근대언론발달사1815-1945』, 서울대학교출판부.
向青, 임상범 역(1992),『코민테른과 中國革命關係史』, 고려원.

-中文

(日)石川禎浩, 袁廣泉 譯(2006),『中國共產黨成立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蘇)C.A.達林(1981),『中國回憶錄1921-1927』, 中國社會科學出版社.
沈志華 主編(2011),『中蘇關係史綱-1917~1991年中蘇關係若干問題再探討』,
社會科學文獻出版社.
梁奎松(2010),『中間地帶的革命-國際大背景下看中共成功之道』, 山西出版集團·
山西人民出版社.
于俊道(1986),『中國革命中的共產國際人物』, 四川人民出版社.
李喜所(2010),『中國留學通史-民國卷』, 廣東教育出版社.
張秋實(2004),『瞿秋白與共產國際』, 中共黨史出版社.
張澤宇(2009),『留學與革命-20世紀20年代留學蘇聯熱潮研究』, 人民出版社.
陳秀萍(1999),『俞秀松評傳』, 中共黨史出版社.
陳鐵健(2009),『瞿秋白傳』, 紅旗出版社.
郝世昌, 李亞晨(2001),『留蘇教育史稿』, 黑龍江教育出版社.

黃新憲(1991),『中國留學教育的歷史反思』,四川教育出版社.

- 日文

嵯峨隆 外(1992),『中國アナキズム運動の回想』,總和社.

初期コミンイテルンと東アジア研究會編著(2007),『初期コミンイテルンと東アジア』,
不二出版.

3. 연구 논문

- 國文

김정화(1998),「채원배의 이상주의 실천-유법근공검학(留法勤工儉學)운동의 교육구국적 측면」,
『충북사학』 10.

김수영(2008),「보이팅스키와 초기 동아시아 공산주의 운동」,『중국현대사연구』 36.

손승희(1992),「中國共產黨의 成立과 코민테른-보이팅스키의 活動을 中心으로-」,
『서울대 동양사학과 논집』 16.

윤상원(2006),「1920년대 초반 러시아의 한인사회주의자들과 코민테른-김만겸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16.

이찬원(2001),「북경 공산주의소조와 활동」,『충실사학』 14.

임상범(1990),「中國共產黨 北京支部의 創立과 初期活動」,『동양사학연구』 34.

정문상(1999),「國共合作 이전 上海 中國社會主義靑年團의 청년운동 모색과 그 실상」,
『동양사학연구』 67.

조세현(2000),「중국 5·4운동 시기 아나키즘-볼셰비즘 논쟁」,『역사비평』 52.

——(2005),「보이팅스키의 중국 방문과 '社會主義者同盟'-중국공산당 창립시기
아나키즘·볼셰비즘 합작과 분열-」,『중국사연구』 36.

——(2006),「에스페란토(世界語)와 중국 아나키즘 운동」,『역사와 경계』 63.

——(2007),「중국공산당 창립에 영향을 미친 한인 사회주의자들-러시아
공산당 · 코민테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于湖 全海宗先生 九旬
紀念 韓中關係史論叢』

조훈(1995),「상해공산주의소조연구사」,『성대사림』 11.

——(1997), 「중국공산주의소조 연구사」, 『중국현대사연구』 3.
홍응호(2005), 「극동공화국 건설에 나타난 소련의 동아시아정책의 한 단면」,
『대동문화연구』 52.

-中文

柯六六(2007), 「父親柯慶施加入社會主義青年團前後」, 『百年潮』
琚忠發(1997第4期), 「論中國二,三十年代的留蘇浪潮」, 『南京政治學院學報』
康民(1988第1期), 「莫斯科中山大學評述」, 『天水師專學報』
關海庭, 陳坡(1983第19期), 「關於柏烈偉和伊凡諾夫的若干材料」, 『黨史通迅』
關山復(1984第3期), 「關於柏烈偉和伊凡諾夫的幾點情況」, 『黨史通迅』
戴學稷(1989第4期), 「走十月革命的道路-二三年代的留蘇浪潮與中國革命運動」,
『內蒙古大學學報』
戴學稷, 徐如(1997第4期), 「略論近現代中國留學史的分期和中國留學生的時代使命」,
『內蒙古大學學報』
鄧紹輝(2009), 「中國近代留俄蘇學生述論」, 『教育史研究』創刊二十周年紀念論文集 7.
藍鴻文(1989), 「歷史的使命-瞿秋白赴蘇俄採訪研究之一」, 『新聞研究』
米鎮波, 「赴蘇俄留學述略(1925-1930)」, 『黨史縱橫』
方慶秋(1981), 「五四運動前後的中國無政府主義派」, 『歷史檔案』
奉仰聰(2002), 「第一代留俄生與馬克思主義在中國的傳播」, 『湖南師範大學』碩士論文
徐萬民(1993第5期), 「伊文與伊鳳閣辨」, 『中共黨史研究』
楊奎松(1994), 「“江浙同鄉會”事件始末」, 『近代史研究』
楊世元(1996), 「試析『四川省重慶共產主義組織的報告』」, 『四川黨史』
姚金果(2005), 「瞿秋白與張國燾」, 『瞿秋白的歷史功績-瞿秋白英勇就義70周年紀念暨學術研討會論文集』
李丹陽(1999第4期), 「最早與李大釗接觸的蘇俄代表-伊萬諾夫」, 『中共黨史研究』
——(2002第1期), 「AB合作在中國個案研究-眞(理)社兼及其他」, 『近代史研究』
李丹陽, 劉建一(2003第2期), 「《上海俄文生活報》與布爾什維克早期在華活動」,
『近代史研究』

- ,——(2003第3期),「一個『安那其布爾什維克』的悲劇-斯托帕尼在上海」,
『百年潮』
- ,——(2004第3期),「“革命局”辨析」,『史學集刊』
- 李丹陽(2004第6期),「馬克思學說研究會與中國共產主義組織的起源」,『史學月刊』
- 李偉民(2009),「瞿秋白對中國留蘇學生教育中存在問題的質疑及其影響」,
『黨史文苑』
- 李喜所(2005第4期),「中國留學生研究的歷史考察」,『文史哲』
- 任武雄(2005第2期),「荷荷諾夫金:推動南陳北李建黨的第一位蘇俄密使」,
『百年潮』
- 錢曉文(2008第23期),「李大釗與北京《晨報》」,『傳媒史話』(復旦大學)
- 張澤宇(2005),「中國近現代留蘇教育史研究綜述」,『徐州師範大學學報』第31卷 第5期.
- 周一評(2008),「瞿秋白 第一次赴俄原因的一些推測」,『瞿秋白研究文叢』第2輯.
- 左貞(1984),「瞿秋白《晨報》通迅初探」,『新聞大學』
- 肖勁光 (1981 第1期),「赴蘇學習前後」,『黨史資料叢刊』
- 肖甦(2002第1期),「俄共黨員柏烈偉在中共建黨時的一些活動」,『北京黨史』
- 崔銀河(2007第5期),「《晨報》副刊與李大釗」,『海南師範大學學報』
- 馮秋香(2009第3期),「早期馬克思主義教育思想中國化研究-以20世紀20年代蘇俄教育
導入中國為視覺」,『河南社會科學』
- 黃紀蓮(1986第1期),「遠東共和國代表團使華史略(一)-遠東共和國使華代表團的組
成與來華途徑」,『黑河學刊』
- (1986第2期),「遠東共和國代表團使華史略(二)-尤林主持下的遠東共和國代表
團在華外交活動」,『黑河學刊』
- 黃新憲(1988第4期),「莫斯科“中山”,“東大”與國共兩黨留蘇生」,『理論學習月刊』